

예술과 GGAC 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FOCUS

04	COLUMN	06	STAGE	10	INTERVIEW
	엮힌 현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 피아노, 수백 년을 이어온 올림의 연쇄		손끝에서 만나는 여덟 가지 파동,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무수히 반복되는 나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다솔

SPOTLIGHT

14	PREVIEW #1
	청년에게 기회가 무대가 되는 순간, 2026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
18	PREVIEW #2
	내면의 노래에서 거대한 세계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 <알러 교향곡 1번>
22	PREVIEW #3
	한 해의 끝, 태평을 기원하다,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태평의 춤>
27	REVIEW #1
	수어와 손 편지로 마음을 건네는 한 가족의 이야기, 배리어프리 연극 <나는 코다입니다>
30	REVIEW #2
	빛과 파도, 광란의 왈츠, 다채로운 색채로 완성된 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34	REVIEW #3
	불이 태우는 것과 불이 밝히는 것, 경기도극단 기획공연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

MOMENTS

38	INSPIRATION
	노래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소프라노 서선영
42	ESG & ART SCENE
	모두에게 열린 문화의 파이프라인, 풍피두 센터가 보여주는 공간 ESG
46	ROUTE
	고요하고 강렬하게 공명하는 곳으로, 다른 것들이 만드는 문화예술 여행지
50	TREND
	취향의 픽셀 모으기, 픽셀라이프
52	CANVAS
	그림으로 듣는 두 시대의 음악, 라울 뒤피와 조선의 악기 풍경
54	DISCOVER
	자연을 생각하는 공연예술

GGAC

56	ZOOM IN
	입과 손으로 별이는 별난 판소리 실험판, 입과손스튜디오 이향하 대표·이상숙 연출가
58	SKETCH
	우리 동네에 찾아온 특별한 음악회, 2026 우리집에 ON 공연장
60	NEWS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 경기국악원 어린이 기획공연 ‘움직이는 이야기’ 등
62	CALENDAR
	경기아트센터 10+11월 공연 일정
64	EVENT
	독자 이벤트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6년 10+11월호

통권 182호
ISSN 2234-5949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장 이홍섭
편집 담당 김규량,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6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신화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MUSIC,

음악, 그리고 공명

A N D

공기는 소리를 나르는 통로일 뿐이지만, 음악은 묵혀둔 마음을 사로잡는 물리력이다.

건반을 누르는 작은 압력이 정적을 깨뜨리면 하나의 음이 허공을 건너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에 닿고
단숨에 일상을 흐뜨려 놓는다. 타인이 건넨 소리가 내 안의 가장 깊은 어둠과 충돌해 진동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것을 '공명'이라 부른다.

RESONANCE

COLUMN

엮힌 현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
피아노, 수백 년을 이어온 울림의 연쇄

STAGE

손끝에서 만나는 여덟 가지 파동,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INTERVIEW

무수히 반복되는 나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다솔

얇힌 현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

피아노, 수백 년을 이어온 울림의 연쇄

피아노의 내부는 조용한 협업으로 움직인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해머가 현을 건드리고, 현의 떨림은 나무를 흔들어 더 넓은 소리로 번진다.

한 음을 내기 위해 악기 안의 수많은 부품이 제 몫을 맡는다. 그렇게 시작된 파동은 연주자의 손을 떠나 공간을 채우고, 듣는 이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남는다. 하나의 음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피아노의 공명에서 그 답을 찾는다.

글. 조은아(피아니스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손끝에서 깨어나는 미세한 떨림

건반 하나를 누른다. 손가락의 힘이 건반에 실리고, 복잡한 액션 장치를 거쳐 해머가 현을 때린다. 현에서 시작된 진동은 브리지를 넘어 공명판으로 번진다. 넓은 나무판이 함께 떨리면서 그 작은 진동은 그제야 피아노다운 울림으로 자라난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은 현들까지 슬며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분명 한 음만 눌렀는데, 악기 안에서는 이미 여러 소리가 깨어나 있다. ‘교감 공명’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하나의 파동이 자신과 배음 관계에 있는 다른 울림을 불러내는 일이다. 마치 홀로 울린 종소리 옆에 걸린 종들까지 화답하는 것과 비슷하다.

피아노 한 대에는 220여 개의 현이 팽팽하게 걸려 있다. 제각기 다른 음정을 지녔지만 언제든지 서로의 메아리에 반응할 준비를 한다. 건반의 ‘도’ 하나만 눌러도 도 음만 들리지 않는다. 바탕음 위로 여러 배음이 겹겹이 쌓이고, 옆에 놓인 현과 나무, 공기까지 미세하게 감응한다. 소리 하나에 수많은 떨림이 포개져 있는 것이다. 건반은 여든여덟 개 뿐이지만, 그 여든여덟 개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결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무가 키워내는 소리

현이 내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어진 진동을 객석 끝까지 실어 나르는 것이 피아노의 공명판이다. 대개 가문비나무로 제작하는데, 결이 곧고 고르며 가벼운 데다 좋은 탄성을 지녔다. 숲에서 오랜 세월 자란 나무가 악기 안에서 다시 한번 흔들려 살아나는 셈이다. 나무와 금속, 펠트와 현, 정교한 기계장치가 맞물려 손끝의 작은 움직임을 커다란 음향으로 키워낸다. 그러므로 피아노는 정교한 기계이자 목공예품이고, 동시에 거대한 공명체다.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이 울림은 한층 넓어진다. 현을 잡고 있던 댐퍼가 돌리면서, 수많은 현이 자유롭게 떨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직접 치지 않은 현들까지 주변의 진동에 반응해 음과 음 사이에 오묘한 여운을 남긴다. 피아니스트에게 페달을 얼마나 깊이 밟는가보다 잔향을 얼마나 잘 듣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소리가 사라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공명은 계속된다.

공기를 타고 퍼진 파동은 우리의 귀에 닿아 고막과 내이를 지나며 신경 신호로 바뀐다. 뇌는 음높이와 음색, 강약과 리듬을 가려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조금 전 들었던

소리와 비교하고, 다음에 올 음을 예측한다. 익숙한 선율을 만나면 기억을 불러오고, 예상하지 못한 화음 앞에서는 긴장한다. 떨림 하나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음악’이 된다.

같은 화음을 듣고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건 그래서다. 누군가는 오래전 한 장면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잠긴다. 어떤 소리는 금세 사라지는 반면, 어떤 음은 공연장을 나온 뒤에도 한동안 머릿속에서 맴돈다. 소리는 건반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듣는 사람 안에서 한 번 더 만들어진단다.

서로의 마음을 흔드는 릴레이

공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연주자는 자신이 내는 소리와 공간의 반향을 듣고 음량과 호흡, 프레이징을 미세하게 조절한다. 피아노 하나로 시작한 무대가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나 삼중주로 넓어질 때, 이 반응은 더욱 선명해진다. 한 악기가 주제를 던지면 다른 악기가 그걸 받아 변형하고, 처음 악기에 되돌려준다. 혼자 연주할 때도 다르지 않다. 악보 위 음표를 자기 몸과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리로 바꾸는 일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진동은 공연장의 공기를 흔들고, 결국 객석 어딘가에 앉은 누군가의 귀와 기억까지 건드린다.

이렇듯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명의 연쇄다. 작곡가에게서 연주자로, 연주자에게서 악기로, 악기에서 공간으로, 다시 공간에서 청중에게로 울림이 퍼져간다. 공명이란 결국 하나의 진동이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불러내는 일인지 모른다. 현이 다른 현을 울리고, 소리가 기억을 일깨우며, 한 사람의 감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다시 처음의 건반 하나로 돌아가 보자. 손끝에서 시작된 그 단순한 타건이 악기 전체를 흔들고 무대를 지나 마침내 누군가의 마음에까지 가닿는다. 한 음이 다른 음을 깨우는 순간, 피아노가 수백 년 동안 사람을 끌어당겨 온 힘은 어쩌면 바로 그 끝없는 공명에 있을 것이다. ▶



손끝에서 만나는 여덟 가지 파동

베토벤에서 쇼팽까지,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2025
KOREA
PIANO
FESTIVAL

KOREA PIANO FESTIVAL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의 주제는 ‘베토벤 프리뷰’다. 베토벤 서거 200주년을 맞는 2027년을 두 달 앞두고 베토벤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협주곡부터 소나타, 실내악, 음악영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베토벤의 피아노 세계를 비추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이 관객에게 건네는 초대장을 하나씩 펼쳐본다.

글. 유윤종(음악평론가,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베토벤이 남긴 젊은 날의 흔적

올해 페스티벌의 개막 무대는 10월 4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I’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음악교육자이자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인 김대진의 지휘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 2, 4번을 피아니스트 세 명과 각각 연주한다.

고향 본을 떠나 빈에 정착할 당시 베토벤이 먼저 이루고자 한 바는 ‘피아노를 잘 치는 신예 음악가’로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에게 피아노 협주곡이란 자신을 세계 음악의 중심지에 알리는 명함이었던 셈이다. 처음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1번에는 2001년 지나 바카우어 영 아티스트 콘서트 1위를 수상한 서울대 기악과 교수 김규연이 협연자로 나선다. 모차르트 협주곡의 그림자가 언뜻 보이지만 오케스트라의 짜임새가 교향곡을 연상시키듯 두터워진 작품이다. 터키풀의 이국적인 꾸밈음이 있는 경쾌한 3악장 론도는 조용히 잦아드는 듯하다가 강력하게 마무리된다.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미리 내다보는 듯한 결말이다.

이어지는 피아노 협주곡 2번에는 2024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유성호가 등장한다. 2번이라는 번호가 붙었지만 실제로는 베토벤의 번호가 붙은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먼저 작곡된 작품이다. 트럼펫과 팀파니 없이 목관과 현악만의 투명한 오케스트라가 펼쳐진다. 마지막 악장의 당김음 리듬이 생기를 불어넣는다.

끝으로 2025년 프랑스 톤티보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1위에 오르며 청중상, 평론가상, 특별상 등 4관왕에 오른 김세현이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한다. 영웅적인 5번 협주곡 ‘황제’와 달리 따뜻하고 사색

적인 분위기가 전체를 감싸며, 협주곡 5번과 함께 높은 인기를 누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1악장에서는 당시의 관례를 깨고 피아노 독주로 시작한다. 명상적이라기보다는 준엄한 2악장, 발랄하고 자유로운 리듬의 세계를 과시하는 3악장이 이어진다.

건반 위에 놓인 두 개의 세계

페스티벌의 두 번째 무대는 5일 소극장에서 열리는 최형록 피아노 리사이틀이다. 최형록은 2019년 제7회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2021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며 활발히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피아노의 숲’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하는 무대로 친숙했지만, 이번에는 건반의 울림만 펼친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과 ‘피아노의 시인’ 쇼팽이 공동 주인공으로 나선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로 무대를 열고, 리스트가 피아노로 옮긴 교향곡 5번 1악장에서는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웅장함을 피아노 한 대로 만들어낸다. 소나타 14번 ‘월광’에서는 베토벤의 낭만적인 내면을 확인한다. 이어 한껏 심리적이고 현대적인 쇼팽의 ‘빗방울’ 프렐류드,

이름 그대로의 정취를 전해주는 ‘화려한 대왈츠’를 지나 쇼팽 피아노 세계의 정수로 꼽히는 피아노 소나타 3번으로 낭만주의 피아니즘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정경을 탐구한다.

6일에는 독일 피아니스트 율리우스 아살이 소극장에서 베토벤의 소나타 세 곡과 자신의 즉흥연주만으로 리사이틀을 갖는다. 아살은 2023년 26세 나이로 음반 명가 도이체 그라모폰(DG)과 계약하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이듬해 발매된 DG 데뷔 음반 ‘스크라빈-스카를라티’는 글로벌 스트리밍 2,500만 회를 돌파했다. 그의 리사이틀에는 ‘독창적인 음색 탐구와 탁월한 즉흥연주’라는 찬사가 따른다.

아살은 이번 리사이틀에서 베토벤의 첫 피아노 소나타와 후기의 소나타 24번을 연주한다. 그 뒤 베토벤의 주제에 의한 즉흥연주 등 그의 남다른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주가 이어진다. 200여년 전 베토벤의 주제를 현재의 손끝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는 시도다. 그다음 베토벤 후기의 이상주의적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마지막 소나타 32번으로 리사이틀의 문을 닫는다. ‘Per aspera ad astra(역경을 거쳐 별로 향하다)’라는 잠언이 떠오르는, 음악적 정신사의 명편이라고 할 만하다.

무대의 경계를 넓히는 이름들

7일에는 이번 페스티벌의 아주 흥미로운 무대 중 하나인 ‘피아노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공연이 소극장에서 열린다. 8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막 깨어나기 시작한 ‘피아노계의 젊은 소리’를 먼저 듣게 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몇 해 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의 협연자 명단에서 이날 무대에 오른 피아니스트들의 이름을 다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8일 소극장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의 유일한 실내악 무대,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공연이 열린다. 2004년 포르투 피아노 콩쿠르 1위와 특별상을 받고 2013년 헤이스팅스 콩쿠르 1위를 차지한 경희대 기악과 부교

수 김태형이 건반 앞에 앉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2005년 사라사테 콩쿠르와 2009년 레오폴트 모차르트 콩쿠르 1위를 차지한 한예종 기악과 교수 이지혜,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으로 장기간 재직하고 현재 서울대 교수로 활동 중인 첼리스트 김두민이 함께한다. 먼저 연주될 두 곡은 외향적이고 극적인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3번과 우아하고 유머러스한 피아노 트리오 6번이다. 이어 베토벤 자신이 피아노 트리오용으로 편곡한 교향곡 2번이 등장한다. 19세기 초에는 관현악곡을 가정용 실내악으로 편곡하는 작업이 유행했는데, 베토벤은 무단 편곡을 막고자 이 곡을 직접 트리오 편성에 맞게 개작해 출판했다. 베토

벤은 오케스트라의 화성과 다이내믹을 피아노에 효과적으로 옮기며 관현악 총보에서 묻히기 쉬운 성부 간의 대화를 투명하게 부각했다.

9일에는 소극장에서 영화 <샤인>이 리마스터링 4K 고화질로 상영된다.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삶을 그린 이 영화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주곡’으로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향한 인간의 집착과 좌절, 회복의 이야기다. 고화질로 복원된 화면과 음향으로 스크린 위의 건반을 한층 실감나게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음이 남긴 여운

10일 소극장에서 열리는 ‘Stage for you’에서는 공모로 선발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전문 연주자가 아니어도, 건반 앞에서 느끼는 떨림과 설렘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진심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더 크게 가슴을 울리기도 한다. 매일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연주자’라는 이름으로 조명 아래 서는 것, 이번 페스티벌이 말하는 공명의 또 다른 얼굴이다.

페스티벌의 끝은 10일 대극장에서 열리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II’가 장식한다. 개막 공연인 협주곡 전곡 I처럼 김대진 지휘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김다솔과 올리버 케른이다. 2005년 나고야 콩쿠르와 2011년 에피날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21년 오스트리아 빈 베토벤 콩쿠르 공동 2위를 수상한 서울대 음대 교수 김다솔은 이 무대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한다.



협주곡 3번은 베토벤이 처음 단조로 쓴 협주곡이다. 모차르트적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 자신만의 다이내믹한 음악 언어를 보여주는 곡이기도 하다. 터키 행진곡 주제가 나오는 3악장은 단조로 쓴 이 협주곡에서 비애를 씻어내고 활달한 분위기로 몰아간다. 5번 협주곡 ‘황제’를 협연할 올리버 케른은 독일 정통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학자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 음대와 뮌헨 국립음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젊은 거장들을 배출했다.

베토벤은 이 ‘황제’ 협주곡에서 오케스트라와 독주 피아노를 대등한 위치에 세우면서 협주곡 장르를 사실상 ‘독주 피아노’가 있는 교향곡’ 규모로 확장했다. 연주 시간도 약 40분에 달하는 대곡이다. 이 곡 이후 베토벤의 청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협주곡이라는 장르는 그의 후기 작품 목록에서 사라진다. 이 곡은 베토벤이 남긴 협주곡 여정의 마지막 기념비가 되었다.

무대 위 연주자의 손끝에서 태어난 소리는 공명과 잔향을 일으키며 객석으로 퍼져나가고 청중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일으킨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는 처음 피아노 앞에 앉은 그날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오래전의 인연을 머릿속에 회상한다.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은 악기의 소리가 마음과 만나 빚어내는 다양한 공명의 확장을 보여준다. 여덟 개의 무대가 펼쳐낼 뚜렷한 색깔의 음악은 작곡가의 악보에서 연주자의 손끝을 거쳐 관객의 마음에 닿으며 하나의 커다란 화음을 완성할 것이다. ▶



일자 2026.10.4.(일)~10.10.(토)

장소 경기아트센터

문의 031-230-3267

무수히 반복되는 나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다솔

무대에서 내려올 때 단 한 번도 온전히 만족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6년에 걸쳐 다 올리고 나서는 마흔에, 원에, 그리고 죽기 전에 또다시 도전하기를 소망한다. 완벽한 연주를 향한 갈망과 집념은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베토벤이 유독 깊은 공명으로 다가오는 이유일 것이다.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에 그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으로 돌아온다.

글. 마이삭(디자인신화) | 진행. 김규량(경기아트센터) | 사진. 김정호



음악가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2021년 빈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에 오른 뒤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해왔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무대와 교육 현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기 중 피아노에 마음이 끌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에 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피아노를 만났을 때부터 유독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넓은 음역과 큰 규모로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힘이 있잖아요. 동시에 저를 안아주는 듯한 따뜻함도 지녔고요. 기초적인 악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악의 아주 기분이 되는 악기라는 느낌도 받았어

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음악 학원에 더 자주 가고 싶어 했고, 피아노와 보내는 시간도 점차 늘었죠. 처음 가졌던 그 인상과 감정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기준을 세우기보다 작곡가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음악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작품을 썼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작곡가와 악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시각도 달라지고, 그 이해를 토대로 제 연주를 만들어갑니다.

연주를 통해 관객과 공명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최근에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을 연주했어요. 마지막 즈음에 이르면 소리가 아주

찾아들면서 시간이 멈추는 듯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와 관객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서로 무언의 교감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공연 중에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또 찾아오리라 믿고 싶어요.

가장 어려웠던 무대를 꼽는다면요.

단연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였어요. 6년에 걸쳐 베토벤이 남긴 피아노 소나타 32곡을 무대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힘들었죠. 동시에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나요. 마흔이 되면 한 번 더, 쉰이 되면 또 한 번 더, 그리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연주예요.

오랜 시간 베토벤을 들여다보면서 그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보다는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새롭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점이 베토벤의 곡을 연주할 때마다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평생에 걸쳐 그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소감은 어떤가요.

여러모로 '다시 만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연주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아마 저는 평생
베토벤과 함께하면서,
그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 저와 아주 친한 작품이지만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2014년이 마지막이었으니 이번 재회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네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대진 선생님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것도 반갑고요. 김대진 선생님 역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서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나누며 더욱 깊이 있는 연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과 지휘자, 오케스트라 모두 오랜 인연이 있는 만큼 이번 무대가 참 기대되고 설렙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베토벤의 음악은 모든 것이 항상 최대치에 닿아 있는 것만 같아요. 나무의 잔가지를 모두 쳐내고 가장 중요한 기둥만 남겨놓은 듯 오래 다듬어지고 압축된 음악이죠. 그렇기에 연주할 때도 이성적인 치밀함과 감성적인 에너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비로소 음악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특히 협주곡 제3번에서는 2악장을 빼놓을 수 없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베토벤의 낭만과 감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반면 1악장 카덴차에서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즉흥 연주자였던 그의 면모가 두드러지

고요. 이번 무대가 베토벤이 지닌 여러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폐막 공연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제가 제3번을 연주한 뒤 올리버 케른이 제5번 ‘황제’를 이어 연주하면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의 전곡 여정이 완성됩니다. 두 작품은 정말 한 작곡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두 연주자를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작품이 보여주는 베토벤의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폭넓은 음악 세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음악은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음악은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조금 덜 외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반드시 클래식 음악이 아니더라도요. 저 역시 음악으로 외로움을 이겨낸 경험이 많고, 지금도 힘들거나 슬플 때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곤 하거든요. 순전히 제가 피아니스트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음악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앞으로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작곡가와 작품이 있다면요.

현재 이지혜 바이올리니스트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진행하며 베토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아노 독주 작품으로는 슈만을 다루고 있고요. 또 2028년을 향해서는 슈베르트와 함께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이 세 작곡가와 가까이 지내며 각자의 세계를 더 세밀하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나요.

그저 더 잘 연주하고 싶어요. 무대에서 내려올 때 제 연주가 완전히 마음에 들었던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연주자였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억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음악에 끝까지 진심을 다한 사람으로 남고 싶을 뿐이죠. 훗날 제 삶을 음악에 다 바쳤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세요.



PREVIEW #1

청년에게 기회가 무대가 되는 순간,
2026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

PREVIEW #2

내면의 노래에서 거대한 세계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1번〉

PREVIEW #3

한 해의 끝, 태평을 기원하다,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태평의 춤〉

REVIEW #1

수어와 손 편지로 마음을 건네는 한 가족의 이야기,
배리어프리 연극 〈나는 코다입니다〉

REVIEW #2

빛과 파도, 광란의 왈츠, 다채로운 색채로 완성된 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REVIEW #3

불이 태우는 것과 불이 밝히는 것,
경기도극단 기획공연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

SPOTLIGHT

무대를 꿈꾸는 청년에게, 기회가 무대가 되는 순간

2026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

무대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것은 비단 실력만이 아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 함께 호흡하며 작품을 빚어낼 동료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현장의 배움도 필수적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는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청년예술인이 창작과 공연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다음 행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는 자리

예술가에게 공연은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자리인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지탱해 줄 중요한 이정표다. 하지만 활동 이력이 짧은 청년예술인이 충분한 연습과 제작 과정을 거쳐 관객을 만날 계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작품을 준비하고 발표할 현장을 찾는 일은 또 다른 과제이기 때문이다. '2026 경기청년 예술기회무대'는 이러한 청년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창작과 발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국음악, 서양음악, 실용음악, 한국무용, 발레, 연극 등 6개 분야에서 총 232명을 선발했다.

이번 사업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 뒤, 워크숍과 작품 제작을 거쳐 실제 공연에 오르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청년예술인이 공연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몸소 겪고, 전문 예술인과 동료를 만나 역량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

공연은 막이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공모에 지원한 청년예술인들은 서류, 영상, 실연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로 선정된 뒤 워크숍과 작품 제작 과정에 합류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준비와 협업 방식을 배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경기도무용단의 단원들을 비롯해 각 분야의 베테랑 외부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작품의 방향성을 같이 조율하고 연주, 연기, 움직임 등을 세밀하게 다듬으며 청년예술인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이끈다. 완성된 작품에 출연하는 한편, 동료 예술인과 의견을 나누며 전문 스태프와 호흡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서는 알기 어려웠던 제작의 흐름과 현장의 역할을 직접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섯 장르, 여섯 가지 색

한국음악부터 서양음악, 실용음악, 한국무용, 발레, 연극까지, 각기 다른 길을 걸은 청년예술인들이 올가을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연극은 <혼례잔치>, 발레는 <돈키호테>를 프로젝트 작품으로 준비한다. 한국무용은 지난해 선보인 <탈, 탈 털어>를 다시 공연하며, 한국음악은 프로젝트형 관현악 공연을 선보인다. 서양음악과 실용음악 분야에서는 독주와 앙상블을 중심으로 청년연주자들의 개성과 기량을 펼친다.

무대의 형식과 준비 과정은 다르지만, 각 분야의 특성을 살린 공연



“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청년예술인에게 자신의 실력을 펼칠 기회를 얻는 일은 쉽지 않다.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는 청년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을 선보이고,
 한 번의 공연을 발판 삼아 다음 무대를 준비할 힘을 보탠다.

”



을 직접 만들고 선보인다는 점에서는 한뜻을 모은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고닮은 실력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해 하나의 결과물을 관개 앞에
 내놓는다는 데 뜻을 모은다. 개인의 역량과 다른 예술가가 만나 시너
 지를 내는 과정이야말로 이번 사업이 비추는 가장 찬란한 장면이다.

한 번의 공연, 그다음의 활동

지원 범위는 공연 당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습과 제작, 실연에 이르
 는 전 과정을 거치며 현장 감각을 키우고, 자신의 예술을 실제 공연으
 로 완성하는 과정을 배운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분야별 멘토
 와 동료 예술인을 만나 작품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연주와 연기, 음
 직임을 다듬으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협업 방식도 경험한다.
 참여자 간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창작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선발된 예술인에게는 경기아트센터 프로젝트 제작공연 참여 기회

와 출연료, 활동비, 분야별 멘토링이 제공된다. 공연을 준비하고 실제
 무대에 서는 과정에서 역량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앞
 으로의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무대에서 쌓은 경
 험과 역량이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공연 이후의 가능성까지 염두
 에 둔 것이다. 청년예술인이 자신의 작업을 지속하고, 다음 무대를 준
 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누군가에게는 이번 무대가 첫 전문 무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발판이 된다. 공연을 마친 뒤에도 이번 과정에
 서 만난 동료와 나눈 의견, 현장에서 받은 자극은 각자의 활동을 이어
 가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공연이 다음 기회를 준
 비하는 힘으로 남는 일이다. 청년예술인이 오늘의 무대에서 얻은 힘으
 로 내일의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예술기회무대'가 함께
 한다.▶▶

일정

10월

10.15(목)~10.16(금)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GGAC CLASSIC> - 서양음악
 10.24(토)~10.25(일)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GGAC CLASSIC> - 서양음악

11월

11.4(수)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돈키호테> - 발레
 11.4(수)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실용음악
 11.19(목)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실용음악
 11.26(목)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 한국음악

12월

12.11(금)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탈, 탈, 탈> - 한국무용
 12.17(목)~12.18(금)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흔레잔치> - 연극

경 기 시 나 위 오 케 스트 라 기 획 공 연

젊은 명인

young virtuoso

한국음악의 내일을 빛낼
 젊은 연주자와의 협연 무대



2026. 11. 19.(목) 19:30
 경기국악원 국악당

지휘·예술감독 김성진 | 연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관람료 전석 3만원 관람가 5세(2021년생) 이상 예매 NOLE티켓 1544-2344 문의 031-289-6472~5 공연 정보 및 예매

내면의 노래에서, 거대한 세계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1번〉

한 사람의 내밀한 감정에서 비롯된 음악은 어느 순간 자연의 소리가 되고, 광활한 세계가 된다.
바그너의 깊고 뜨거운 사랑의 노래와 청년 말러가 써 내려간 첫 번째 교향곡.
지휘자 홍석원과 소프라노 서선영,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사랑에서 시작된 뜨거운 노래

19세기 후반, 서양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자연, 삶을 더욱 폭넓게 표현했다.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전례 없이 커졌고, 작곡가들은 사랑과 고통, 자연과 삶이라는 근원적 주제를 이전보다 강렬하고 섬세하게 풀어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1번〉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와 구스타프 말러의 작품을 한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다. 탁월한 곡 해석력을 보여 온 지휘자 홍석원이 경기필을 이끌고,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빛내는 소프라노 서선영이 협연자로 나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오는 10월 3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 이어 3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관객을 만난다.

14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바그너

공연의 전반부는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으로 문을 연다. 이 작품은 바그너의 예술적 후원자였던 오토 베젠동크의 아내이자 바그너의 연인이었던 마틸데 베젠동크가 쓴 다섯 편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이다. 인간 내면의 애정과 동경, 치명적인 아픔과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곡 전체에 짙게 배어 있다. 특히 '온실에서'와 '꿈'은 훗날 세기의 음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로 이어지는 바그너 특유의 환상적이고 관능적인 화성적 특징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 음악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한 사람의 내면을 노래하는 가곡과 자연과 삶을 그려내는 교향곡.
서로 다른 두 작곡가의 작품이 한 무대에서 만나 사랑과 동경에서 삶과 죽음까지 폭넓은 감정을 그린다.
바그너의 깊고 뜨거운 노래에서 말러의 웅장한 교향곡으로,
음악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출발해 자연과 삶을 품은 넓은 세계로 향한다.

”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서선영은 섬세하고 호소력 짙은 표현력으로 작품 속 복잡다단한 감정을 직조해 낸다.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여자 성악 부문에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성악가로, 오페라와 콘서트홀을 오가며 독보적인 기량을 증명해 왔다. 특히 ‘베젠동크 가곡’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 레퍼토리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이듬해인 2012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 이 곡을 협연했던 그는 당시 관객에게 가사의 시적 의미를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독일어 원시를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후 인터뷰에서도 가곡을 부를 때마다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화자의 미세한 심리 변화를 살피며 시어(詩語)를 직접 다듬는다고 밝힌 바 있다. 14년 만에 다시 부르는 서선영의 ‘베젠동크 가곡’은 그동안 축적된 예술적 깊이와 무르익은 해석을 통해 애정과 갈망, 아픔과 구원의 꿈이 교차하는 바그너의 가장 내밀한 내면을 어떻게 그려낼지 깊은 울림을 예고한다.



일시 2024.10.30.(금) 19:30 |
10.31.(토) 17: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액 장소별 상이
문의 031-230-3377



숲에서 우주까지, 말러의 세계

공연의 후반부에는 말러의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이 연주된다. 말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완성한 첫 번째 교향곡이지만, 훗날 ‘우주를 담은 교향곡’이라 불리는 그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미 작품 곳곳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다.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듯한 자연의 소리와 숲속 새들의 지저귀, 소박한 춤곡과 민속적 선율, 기묘한 분위기의 장송행진곡과 폭발적인 오케스트라의 총연주까지, 다양한 표정의 선율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하나의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첫 악장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대자연의 경이로운 순간을 그린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고, 음악은 점차 큰 생명력을 얻어 약동한다. 2악장의 활기찬 농민들의 춤곡을 지나 3악장에 이르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동요 ‘자크 수사’의 선율이 단조로 변형되어 기묘하고 냉소적인 장송행진곡으로 울려 퍼진다.

마지막 악장은 쌓여온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피날레다. 격렬한 충돌과 고통스러운 투쟁 끝에 마침내 도달하는 찬란한 D장조의 대단원은 자연과 인간, 희극과 비극, 삶과 죽음의 모든 국면을 아우르며 말러 특유의 압도적인 음향적 풍경을 완성한다.

한 무대에서 만난 두 개의 세계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방대한 악곡의 구조를 유기적으로 이끄는 지휘자는 홍석원이다. 교향곡 무대는 물론 오페라와 발레 등 무대예술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온 그는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오페라극장의 수석 카펠마이스터를 역임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다져왔다. 오페라 무대에서 다져진 극적 서사 감각과 교향악의 복잡하고 다

층적인 구조를 조화시키는 그의 능력은 인간의 고뇌와 우주적 자연이 공존하는 말러의 세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

말러 교향곡 제1번은 오케스트라 각 악기 파트의 다채로운 음색과 입체적인 편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무대 뒤에서 아스라이 울리는 트럼펫의 원경 효과부터 금관악기군이 무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 쏟아내는 압도적인 피날레까지, 음악은 극단적인 음향의 폭을 오간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악기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지휘자의 단단한 호흡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음악으로 수렴된다.

이번 연주회에서 관객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얼마나 웅장한가’에 있지 않다. 지휘자 홍석원이 경기필하모닉 각 파트의 연주자들로부터 얼마나 다채롭고 생생한 음색을 끌어내며, 대조적인 음악적 장면들을 단 하나의 유기적인 결로 엮어낼지 지켜보는 것은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감상 포인트다.

두 음악이 남긴 서로 다른 감정

바그너와 말러의 음악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해 인간 정신의 극점으로 향한다. ‘베젠동크 가곡’이 다섯 편의 시를 도구 삼아 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심연을 고요하게 들여다본다면, 말러의 첫 번째 교향곡은 그 시선을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상 전체로 넓혀간다. 그리고 그 장엄한 여정의 중심에는 오랜 시간 시어의 본질을 탐구해 온 소프라노 서선영, 대규모 악단을 이끌며 극적인 서사를 완성할 지휘자 홍석원, 그리고 무수한 음색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게 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다. 올가을, 가장 내밀한 노래에서 가장 장대한 교향곡으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음악적 순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한 해의 끝, 태평을 기원하다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태평의 춤>

한 해의 끝에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마음과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설렘이 찾아온다.
경기도무용단은 2026년을 매듭짓는 무대에 묵은
액운을 떨쳐내고 새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춤을 올린다. 벽사진경(辟邪進慶),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다는 뜻과 국태
민안(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태평의 춤>이다.
궁중의 장엄한 춤과 민속의 넉넉한 가락,
우리 춤에 깃든 축원의 정성이 무대에 오른다.

사진, 최진욱, 조인호



복을 바라는 춤

우리 춤에는 오래전부터 삶의 평안을 바라
고 복을 기원하는 소망이 깊게 깃들어 있다.
궁중 의례에서 추던 춤과 백성의 삶 가까이
에서 즐기던 민속춤은 형식은 달랐지만, 좋
은 기운을 맞이하고 평탄한 삶을 바라는 마
음만큼은 닮았다.

<태평의 춤>은 경기도무용단이 그동안
펼쳐 온 전통춤 레퍼토리를 '태평'이라는 하
나의 주제로 아우른 공연이다. 궁중무용에
서는 격식과 축원의 정서를, 민속무용에서
는 활기찬 선율과 역동성을 살린다. 각기 다
른 춤이 차례로 놓이며 우리 춤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공연의 문을 여는 것은 '대취타'다.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에 쓰이던 전통 행진 음
악으로, 웅장한 관악기와 타악기의 소리가
묵직한 행렬을 이룬다. 한 해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태평을 향해 나아가는 첫 장면이
다. 이어서 펼쳐지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
에서는 학무와 연화대무, 처용무를 한 무대
에서 선보인다. 학의 고고한 자태와 연꽃에
서 나오는 동녀의 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처용의 춤이 결합해 궁중무용 특유의 화려
함과 격조를 자아낸다. 특히 처용무에 담긴
벽사진경의 뜻이 공연의 축원 의미를 한층
선명하게 드러낸다.



“

무대 위로 흐르는 묵직한 장단과 몸짓이
우리의 일상을 다독이는 소박한 안부가 된다.
한 해의 모서리에서 지난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경기도무용단의 춤과 가락이 건네는 느긋한 위로를 만난다.

”



격식에서 흥으로

궁중무용의 위엄 뒤에는 민속의 쾌활한 가락이 기다린다. '사물놀이'는 팽과리와 징, 장구와 북이 만들어내는 박진감 넘치는 장단으로 분위기를 바꾼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포놀이로 문을 열어 타악의 힘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부채춤'은 다채로운 선으로 꽃과 물결 등 다양한 형상을 빚어낸다. 정교하고 부드러운 움직임과 풍성한 대형이 조화를 이루며 여성춤 특유의 미학을 나타낸다.

진도북춤과 장고춤, 진쇠춤도 차례로 등장한다. 양손에 채를 쥐고 북을 치며 춤추는 '진도북춤'은 빠른 북가락과 정교한 기예로 진도 지역의 맛을 전한다. '장고춤'은 장고를 비스듬히 둘러메고 춤과 연주를 병행하며 경쾌한 발디딤과 고운 동작을 펼친다. 팽과리를 뜻하는 진쇠를 들고 추는 '진쇠춤'은 힘 있는 발디딤과 절도 있는 동작, 강렬한 쇠가락으로 공연 후반의 열기를 뜨겁게 달군다.

남녀의춤, 하나의대무로

각기 다른 춤과 장단이 쌓인 뒤 마지막에 놓이는 작품은 '태평무'다. 백성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춤으로, 곧게 편 몸과 절제된 자태, 장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발놀림이 특징이다. 절제와 신명이 공존하는 몸짓에는 평안을 바라는 마음과 춤꾼의 기쁨이 깃든다. 고요하고 정제된 움직임 사이에 빠르고 힘찬 디딤이 이어지며, 공연의 흐름을 절정으로 이끈다.

'태평의 춤'에서는 남녀 무용수가 함께하는 대무(對舞)와 대규모 군무(群舞)로 태평무를 확장한다. 궁중과 민속, 여성춤과 남성춤에서 펼쳐 온 여러 춤사위가 마지막 무대에서 한데 모여 공연의 주제인 '태평'을 매듭짓는다. 개인의 평안과 모두의 안녕을 그리는 춤으로 무대의 끝을 장식한다.



오래된 춤이 건네는 안부

<태평의 춤>은 전통춤만을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다. 궁중의 의례에서 인간의 놀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어져 온 춤을 '태평'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맞이하는 벽사진경의 격식,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바라는 국태민안의 다짐, 삶의 기쁨을 나누는 흥겨움과 생동감까지 우리 춤에 깃든 다양한 빛깔을 한 무대에 담아낸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음악과 경기도무용단의 춤이 어우러지는 이 무대에는 전통을 오늘의 감성으로 풀어내려는 고민도 담겼다. 오래된 춤사위와 장단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각각의 춤이 지닌 특징이 하나의 공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성했다. 장엄한 대취타로 문을 열어 궁중무용의 품격을 보여주고, 민속춤의 움직임으로 무대의 흥취를 높인 뒤 태평무로 모든 에너지를 모은다. 한 해 동안 쌓인 걱정은 털어내고 액운은 떨쳐내며,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어쩌면 '태평'은 크나큰 단어라기보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평범한 바람에 더 가깝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웃과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기를, 새로운 날에는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 시대가 달라져도 이런 바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축원의 춤은 오늘의 무대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 경기도무용단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쾌활한 가락과 활기찬 춤사위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2027년의 평온과 안녕을 기약해 본다.▶▶



일시 2026.11.28.(토)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가격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5,000원 | 만원의행복석 10,000원

문의 031-230-3312

저무는 시간 너머,

경기도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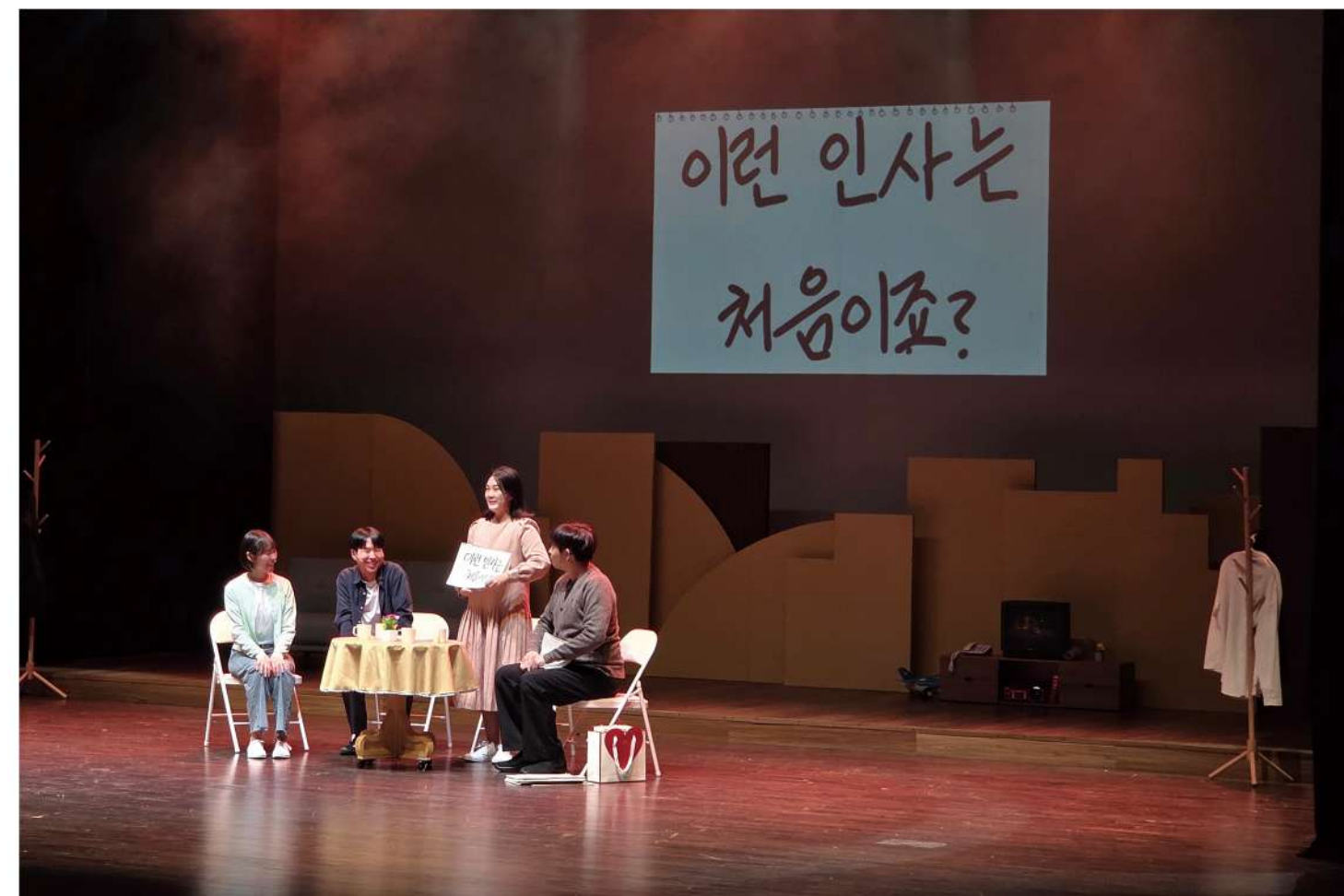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태평의 춤

손끝에서 열리는 평안

2026.
11.28. SAT
16:00

관람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5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주최·주관 | (재)경기아트센터
출연 | 경기도무용단
연주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매 | NOLticket 1544-2344



서로의 얼굴을 보고, 수어와 손 편지로 마음을 건네는 한 가족의 이야기

배리어프리 연극 <나는 코다입니다>

9월 12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배리어프리 연극 <나는 코다입니다>가 인터미션 없이 85분 동안 진행되었다. 농인과 청인, 코다가 함께 만든 무대다. 대사가 수어로 표현되었고, 음성언어와 자막으로도 이야기가 전해졌다. 처음에는 수어가 낯설었지만,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두 손을 들어 수어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무대에서 수어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수어로 감동과 고마움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글. 조준혁(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마음을 전하는 방식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약자로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를 가리킨다. 농인은 청각장애가 있으며 수어를 일상어로 쓰는 사람, 청인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공연 전까지 코다를 음악 용어로만 알고 있었다. 악곡을 마무리하는 종결부를 뜻하는 그 코다 말이다.

이연극은 극단바이주나가 제작한 작품이다. 2022년 농인 어머니들과 ‘엄마의 시선’으로 공연을 만들면서 극단의 활동이 시작됐고, 2년 뒤 여러 코다를 인터뷰해 자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2024년 입체낭독극을 거쳐 정식 공연이 됐고, 기획 의도에는 주인공 도영과 농인 아빠 동준, 농인 엄마 연희, 여자 친구 아름은 모두 허구의 인물로 ‘저희가 만난 모두 이자 또 그 누구도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 무대에서도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상대를 설득하는지에 자주 눈이 간다. <나는 코다입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건너편에서도 닿는 말

공연에서는 수어와 음성언어가 함께 사용된다. 수어는 손만 쓰는 언어가 아니다. 눈썹의 움직임과 시선, 입 모양도 뜻과 문법을 구성한다고 한다. 배우들의 표정에는 인물의 감정과 수어의 의미가 함께 실려 있었다.

두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도영과 여자 친구 아름은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다. 아직 빨간불인데 둘은 건너편을 향해 수어로 인사를 나눈다. 반갑다는 말과 보고 싶었다는 말이 도로를 건너 전달된다. 야외 벤치 장면도 그렇다. 주변이 시끄러운데 대화는 흔들리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으니까. 멀면 소리는 흩어지고 시끄러우면 소리는 묻힌다. 서로의 손과 얼굴이 보이는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두 장면에서 수어는 두 사람에게 편안하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었다.

접근성도 같은 이야기였다. 자막에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정보까지 담기고, 소리는 배경 화면의 영상으로 시각화된다. 객석 조명을 일부 켜두고, 공연 중 자유로운 출입도 허용했다. 접근성은 누구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어느 순간부터 손이 무대를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에는 두 손을 들어 반짝반짝 흔드는 수어 박수를 보냈다. 85분 동안 언어를 배울 수는 없다. 다만 낯섦이 줄었고, 응답하는 방식이 하나 늘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

주인공 도영에게 사춘기가 온다. 반 친구들이 어머니의 발음을 흉내 내며 놀린다. 도영은 집에 돌아와 애꿎은 어머니에게 화를 낸다. “천천히 말하면 들려? 안 들리잖아.” “그럴 거면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밖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날아간다.

며칠 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린다. “김도영, 밥 먹자.” 어머니는 카세트테이프를 꺼내 아들의 이름을 다시 연습하고 있었다. 오래전 수없이 불러보았던 이름이었다. 이 장면이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 도영이 친구들에게 말한다. 나는 부모님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그는 자기 집의 저녁 풍경을 꺼내 놓는다. 도영이 들려주는 가족의 구체적인 일상이 친구들의 편견에 답이 된다.

이 말이 오래 남았다. 우리는 하루에 가족과 얼마나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야기할 때 몇 번이나 상대의 얼굴을 보고 있을까. 같은 공간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본 채 “응, 응”하고 대답한 적도 있을 것이다. 도영의 가족은 수어로 대화하며 서로의 손과 얼굴에 시선을 둔다. 그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동안,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에도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



열두 번의 손 편지

도영이 아름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간다. 여자 친구의 어머니의 답은 짧고 단호하다.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되네. 난 허락할 수 없어. 이만 돌아가.” 긴 생각 끝에 도영이 택한 방법은 이랬다. “전 아빠와 같은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뺄 때도 없던 시절, 동준은 연희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손 편지를 썼다. 한 번이 아니라 열두 번. 그 열두 통의 편지가 한 가정을 만들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얻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 앞에 선다. 역시 열두 번을 쓴다. 편지에는 자신이 자라온 가정과 앞으로 함께할 삶에 대한 믿음이 담겼다. “저는 정말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줄 자신도 있고요. 따님도 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단지 제 가족의 장애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도 그만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생각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신다면 말이죠.”

손 편지는 즉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언제 읽고 어떻게 답할지는 받는 사람에게 남겨둔다. 무엇보다 마지막 문장이 미래형이다. 도영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한다. 설득의 시간을 편지 밖의 일상으로 넓혀간다.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본 상대의 모습에 움직이기도 한다. 도영은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다.

‘불구하고’가 지우는 것

노점상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 가판에 ‘반팔 티’라고 적혀 있다. 도영과 아름은 ‘반소매 티’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노점상은 글자를 고친다. 유쾌한 대화 하나가 익숙한 말을 다시 보게 한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 도영이 어느 영화의 문장을 인용한다. “주인공은 지체장애

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로 성공한다.” 그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일 자체를 신기한 사건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불구하고’라는 말에는 장애가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칭찬하려는 말이 오히려 상대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다. 두 장면은 익숙하게 쓰는 표현도 상대의 자리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점상이 그랬듯, 생각이 달라지면 쓰는 말도 바꿀 수 있다. 도영은 공연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극복해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도영의 이야기는 가족을 향한 편견을 넘어, 그 시선을 바꾸어 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객석으로 이어지는 대화

연극은 이런 이야기를 한 가족의 저녁과 다툼과 연애 안에 그냥 놓아둔다. 그래서 객석에 앉은 사람은 도영의 가족을 보다가 어느새 자기 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어느 가족에게나 남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고, 또 어느 가족에게나 남들과 다르지 않은 하루가 있다. 무대 위 인물들이 서로에게 닿을 방법을 찾는 동안 객석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공연은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한다.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의 소중한 사람들.” 배우들의 손이 함께 움직였고, 객석의 손도 따라 움직였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얼굴을 보는 일, 익숙하게 쓰던 말 하나를 상대의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일. 도영의 가족을 보며 떠올린 것들이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인사를 하는 배우들에게도 두 손을 들어 반짝반짝 흔들며 박수를 보냈다. 극장을 나서며 우리가 평소 대화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을까.▶▶

빛과 파도, 광란의 왈츠, 다채로운 색채로 완성된 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프랑스 음악의 매력은 선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 음에서 다음 음으로 이동하는 사이 달라지는 빛깔, 악기와 악기가 만나 달라지는 미묘한 색채, 선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변화가 음악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다비트 라일란트가 이끄는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은 이러한 프랑스 음악의 감각을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확인하게 한 무대였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더했다.

글: 국지연(음악 칼럼니스트)

몽환의 선율이 열어젖힌 밤

9월 1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펼쳐진 2026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의 문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열었다. 1894년 초연된 이 작품은 흔히 현대음악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관현악곡으로 이야기된다. 이전까지 음악을 이끌어가던 주제의 발전과 명확한 화성 진행에서 벗어나 음색과 분위기,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각 자체를 음악의 중심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첫 플루트가 몽환적인 선율을 띄우자 음악은 어디론가 향하기보다 공간 속으로 천천히 번져 나갔다. 예측하기 어려운 선율의 흐름과 잠시 멈춘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호흡은 마치 원을 그리듯 유연했다. 특히 플루트에서 하프로, 목관에서 현악기로 소리가 옮겨갈 때마다 음색의 빛깔이 미세하게 변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두 대의 하프와 현악기가 내는 투명한 색채, 후반부 플루트의 주제 위로 포개지는 첼로의 우아한 선율과 선명한 오보에의 음색도 특별한 서정을 자아냈다.

라일란트는 이 음악의 신비를 과장하지 않았다. 어느 한 악기의 색채를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 서로 다른 음색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조율했고,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는 그 안에서 유연하면서도 균형 잡힌 앙상블을 들려주었다. 신비롭지만 모호하지 않았고, 섬세하면서도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았다. 한여름 오후의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목신의 몽상이 여유롭게 피어났다.

강렬하게 폭발하는 낭만의 피아니즘

이어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에서는 분위기가 단숨에 달라졌다. 신창용의 피아노는 첫 악장부터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에게 고도의 기교와 체력뿐 아니라 거대한 구조를 장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신창용은 화려한 기교 자체를 과시하기보



다 음악의 흐름 안에서 테크닉을 작동시켰다.

1악장에서 특히 돋보인 것은 다이내믹의 폭이었다. 격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순간에는 피아노의 에너지가 폭발했지만,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금세 힘을 거두며 아련한 러시아적 정취를 만들어냈다. 강렬함과 환상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피아니즘이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는 긴장 역시 팽팽했다. 라일란트는 독주자를 압박하기보다 넓은 호흡으로 받쳐주면서 작품의 거대한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2악장에서는 신창용의 또 다른 면모가 나타났다. 아다지오의 풍부한 시정과 감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감정이 지나치게 넘쳐흐르지 않았다. 피아노의 음색은 담백했고, 프레이즈는 유려했다.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서정과 피아노의 절제된 표현이 만나면서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짙은 낭만이 배어나왔다.

그리고 심 없이 이어지는 3악장에서 신창용의 다이내믹한 피아니즘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빠르게 질주하는 패시지와 거대한 화음,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이내믹 속에서도 음악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 섬세한 피아노의 음색과 풍성한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면서 러시아적 감흥과 낭만은 점차 뜨겁게 고조되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곡을 '어렵게 연주하고 있다'는 인상보다 음악 자체의 추진력이 먼저 전달됐다는 점이 좋았다. 탁월한 독주자와 완성도 높은 오케스트라가 함께 빛어낸 낭만과 정교함이 큰 감동을 남겼다.



빛과 물결의 소리

2부의 드뷔시 '바다'에서는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의 색채적 장점이 더욱 선명해졌다. '바다'는 실제 바다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바람, 파도의 움직임을 음향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드뷔시는 자연을 고정된 풍경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순간을 음악 안에 붙잡으려 했다.

1악장 '바다 위의 새벽부터 한낮까지'에서는 싱그러운 바다의 향기와 함께 깊고 넓은 공간감이 느껴졌다. 희미한 새벽빛에서 시작해 점차 밝아지는 바다의 모습이 악기들의 교차와 음색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났다. 라일란트는 소리를 인위적으로 부풀리지 않았다. 거대한 자연을 묘사하면서도 과장하지 않는 절제가 오히려 바다의 깊이 느끼게 했다.

2악장 '물결의 희롱'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민첩함이 돋보였다. 짧은 동기들이 여러 악기 사이를 빠르게 오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음형들이 물보라처럼 반짝였다. 빛과 어둠,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 바다를 그려냈다. 마지막 '바람과 바다의 대화'에서는 에너지가 더 확장됐다. 어둠과 밝음이 맞부딪치고 관현악의 층이 거대하게 쌓이면서 바다의 힘이 느껴졌다.

이 작품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라일란트가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었다. 개별적인 색채와 순간의 아름다움에 매몰되지 않고 세 악장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도록 했다. 세부는 섬세했지만, 전체의 방향은 명료했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역시 목관의 선명함과 현악의 유연함, 필요할 때 힘 있게 솟아오르는 금관을 통해 프랑스 오케스트라 특유의 색채감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

광란의 소용돌이, 눈부신 카타르시스

마지막 라벨의 '라 발스'는 이날 공연의 색채와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피날레였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왈츠의 조각들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이 작은 조각들이 점차 형태를 갖추면서 화려한 무도회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라일란트와 오케스트라는 이를 단순히 우아한 빈왈츠로 들려주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이어 등장하는 화려한 가면무도회처럼 극적이었고, 그 안에는 프랑스 음악 특유의 세련된 색채가 스며 있었다.

현악기의 유려한 선율과 목관의 섬세한 음색, 금관과 타악기의 강렬한 울림이 교차하면서 여러 왈츠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악기들의 음색이 정교하게 겹쳤다가 다시 분리되는 과정도 선명했다. 그러다 찬란했던 왈츠의 3박자가 점차 거칠어지고 속도와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음악은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선율들이 충돌하고 리듬은 비틀렸으며, 처음의 우아한 춤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변해갔다.

그 변화의 과정을 라일란트는 뛰어난 긴장감으로 밀어붙였다. 단순히 음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기들이 겹치고 리듬이 뒤얽힐수록 에너지를 조금씩 축적해 마지막 폭발을 준비했다. 마침내 관현악 전체가 휘몰아치는 순간, 그 압도적인 음향이 전하는 카타르시스는 강렬했다.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희미한 플루트 한 줄에서 출발한 이날의 여정은 '바다'의 무한한 색채를 지나 '라 발스'의 거대한 소용돌이에도 도달했다. 그 중심에는 음색을 세밀하게 조율하면서도 음악 전체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라일란트의 지휘와 유연하고 정교하게 반응하는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있었다. 그리고 신창용은 그 프랑스적 색채의 한가운데 라흐마니노프의 뜨거운 낭만과 폭발적인 피아니즘을 새겨 넣었다. 우아함이 광란으로, 질서가 소용돌이로 변해가는 '라 발스'의 마지막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휘몰아치는 바로 그 순간, 오케스트라는 가장 눈부시게 빛났다.▶▶

2026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피날레콘서트

연주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지휘 박성호
첼로 차지우
바이올린 임지영

OUR SYMPHONY

2026.10.27.TUE
19:30

우리의 교향곡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불이 태우는 것과 불이 밝히는 것

경기도극단 기획공연 -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

학교 급식은 매일 고되게 반복되지만, 그것을 만드는 육체는 좀처럼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의 <버닝: 타오르는 삶>은 이비가시성을 무대 위로 끌어 올린다. 2024년 제4회 창작희곡공모 대상작으로, 입체낭독극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초연되었다. 공연 관람 후 남은 인상은 크게 노동의 가치, 노동의 정의, 뜨거운 열정이라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글. 윤원재(성결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겸임교수, 극단 '약속의연극레퍼토리' 대표)



극은 정혜, 지연, 해숙 세 인물이 학교 급식 조리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일하며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과정을 따라간다. 작가는 실제 조리사들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직접 취재해 희곡을 썼으며, 이들을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짓지 않고 보편적인 노동자로 그리고자 했다. 무엇보다 극의 출발점이 '시위'라는 점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낯선 세 사람의 사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공적인 요구를 매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에서 연대가 감정의 산물이지 앞서 정치적, 사회적 사건임을 암시한다. 또 급식 조리사들의 서사에 학생들의 에피소드가 함께 놓이는 구성 역시 급식이라는 행위를 생산과 소비의 관계로 다시 보게 한다.

노동의 가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노동

노동의 한자 표기는 '勞動'으로 勞(일할 로, 수고할 로)는 윗부분에 불(火)을 품은 글자이다. 서양의 labor와 travail 역시 '고통'과 '수고', '산고'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 동서양의 어원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고통과 불의 언어'이자 '몸이 타들어 가는 경험'으로 포착해 왔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성경 구절(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더불어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하고, 노동은 생명 과정의 필요에 묶여

반복되고, 결과물이 남지 않고 소비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에서의 급식 노동은 이 규정에 놀랄 만큼 부합한다. 급식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급식실에 취직하여 대량의 식사를 만들어 내지만 그 결실은 식판이 비워지는 순간 사라지고, 그것을 만든 몸의 피로와 위험도 함께 지워진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고용 형태는 이 비가시성을 제도적으로 고정한다. 여기서 연극이라는 매체와의 동질성이 드러나게 된다. 공연 역시 관객의 시간 속에서 소비되고 막이 내리면 극은 사라진다. 소멸하는 노동을 소멸하는 예술로 옮긴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하나의 윤리적 작업이며, 무대는 기록되지 않는 노동이 잠시나마 나타나는 송고의 장소가 된다.

노동의 정의: 인정과 위험의 분배

작품이 제기하는 정의의 문제는 이중적이다. 첫째는 인정의 문제다. 약셀 호네테가 논했듯 '노동은 소득의 수단이자,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장'이다. 연극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외면받는 현실을 문제 삼는데, 이 '어쩔 수 없음'이야말로 인정의 부재를 가장 손쉽게 정당화되는 언어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노동자의 대체 가능성을 전제하므로 자기 노동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통제권이 멀어지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둘째는 위험의 분배 문제다. 작품에서 해숙은 급식실 조리 과정에 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폐암을 선고받는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대다수의 열악한 급식실 조리환경은 조리사의 건강을 위협하며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울리히 벡이 지적했듯 현대 사회의 위험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된다. 불안정한 고용 안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로 내놓는 이 구조는 낸시 프레이저가 말한 재분배와 인정의 이중적 부정의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극의 인물들은 이러한 구조 앞에 뜨거



운 열정과 삶에 대한 의지로 노동의 존엄을 보여준다. 계몽적 사회 구호를 외치기보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고, 그 절제가 관객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삶에 대한 열정: 버닝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에서 '버닝(burning)'은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리의 불, 삶이 연료처럼 소진되는 번-아웃,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다.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핵심 긴장을 예고한다. 열정이란 노동자에게 자긍심의 원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열정'이라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부당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수사로 오용되어 온 이력이 있다. 이 작품의 미덕은 열정을 미화하지도, 냉소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작가는 노동자를 부정적으로만 혹은 긍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으려 했다고 밝힌 것처럼, 극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고립된 자기희생이 아니라 세 인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 그리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합적 행위 속에서 재정의된다. 이때 '타오르는 삶'은 그저 소진되고 소모되는 삶이라기보다 함께 타오르는 삶에 가깝다.

박혜선 연출은 급식실의 환경을 설명하는 대신 느끼게 하는 전략을 택했다. 무대는 약하게 깔리는 안개(fog)를 활용하여 정신없이 조리되는 조리대의 열기를 표현했고, 조리사들은 조리대 위에서 칼질과 통일된 움직임으로 '3시간' 안에 급식을 완료해야 하는 급식실의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표현한다. 무대 상부에는 큰 후드를 상하로 움직이고 조명을 사용하여 급식 조리사들이 느끼는 중압감, 압박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조리사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관객의 눈에는 보이는 위험, 즉 유해한 연기를 물질적 이미지로 가시화하는 장치로 보인다. 그리고 배우들의 사실적인 대사와 연기가 중심인 극에 움직임과 주방 소품들의 활용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간결하며 연극적 솔루션이 뛰어나다.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은 창작 희곡 공모에서 무대로 이어지는 공공극장 제작 체계가 맺은 의미 있는 결실이다. 그러나 3일이라는 짧은 공연 기간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식판이 비워지는 순간 수고와 위험까지 함께 지워지던 극은 마지막 엔딩에서 배우들이 식판을 옆으로 전달하며 메시지를 던진다. 그 말은 지극히 일상의 언어이지만,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비워져 사라지던 식판이 이번에는 조리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건네진다. 소멸하는 노동을 막이 내리면 사라지는 예술, 연극으로 옮긴 <버닝: 타오르는 삶>은 노동의 존엄과 삶에 대한 열정을 긍정하며, 관객도 함께 따라 부르게 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의 무대적 증명이다.▶▶



INSPIRATION

노래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소프라노 서선영

ESG & ART SCENE

모두에게 열린 문화의 파이프라인,
퐁피두 센터가 보여주는 공간 ESG

ROUTE

고요하고 강렬하게 공명하는 곳으로,
다른 것들이 만드는 문화예술 여행지

TREND

취향의 픽셀 모으기,
픽셀라이프

CANVAS

그림으로 듣는 두 시대의 음악,
라울 뢰피와 조선의 악기 풍경

DISCOVER

자연을 생각하는 공연예술

노래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1번>
소프라노 서선영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 소프라노 서선영이 인물을
만나는 방식이다. 대본에 적힌 말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삶과 마음을 살피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낸다.
그래서 무대에서는 한 음 한 음에 인물의 이야기가 배어나온다.
10월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V에서는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동경,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전행, 양효선(디자인신화)

<투란도트>, ©예술의전당, 김신중

<예술과만남> 독자들을 위해 현재 어
떤 활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만나고 계
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6
년째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음악을
탐구하고 가르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제게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두 편의 대작에서 새로운 역할로 데뷔하
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아비가일레와 푸치
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타이틀롤인 투란도트로 관객분들을 만났습
니다. 두 배역 모두 음악적으로나 연기로 에너지 소모가 크고 도전적
인 인물들이어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무대에 서기까지 하루하루가 가
슴 뛰는 도전이었습니다. 성악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던 소
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음악을 하게 한 원동력은 무
엇인가요.

처음 성악에 매료된 계기는 교회 성가대 활동이었습니다. 더 어린 시절
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부모님께서 성
악 전공을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터라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지
나서야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
은 출발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처음 음악을 만났던 순수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더 잘하고 싶다'는 열망만큼은 단 한 번도 사그라든
적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열정이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게 하고, 매
일 무대 뒤에서 연구하고 연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의 배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
게 여기는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작품 속 인물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그가 지닌 서사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의 시선뿐 아니라 극 중 다른 등장인물들
이 그 사람에 대해 나누는 대화와 묘사까지 하나하나 수집하고 종합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대본 속 인물이 더욱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완
성된다고 믿습니다.

또 '왜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이
해하려고 합니다. 인물의 감정을 제가 임의로 과하게 보태거나 덜어내
기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노래에 살고, 사
랑에 살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토스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을 원망



<투란도트>, ©예술의전당, 김신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답을 구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오직 신을 향
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질문하는 장
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
해해야 그 순간에 어떤 소리와 연기, 감
정선이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작곡가가 악보에 담
아낸 의도를 무대 위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인물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언제나 <수녀 안젤리카>의 안젤리카를 꼽습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
할 중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안젤리카는 아이를 잃
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연인과의 이별이나 자기
죽음보다도 훨씬 깊고 처절한 비극을 간직하고 있죠.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뒤 아리아를 부르기 직전 약 7분간 이어지는 오케스트라 연주
구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사나 노래 없이 오직 연기만으로 채워야
하는 긴 시간이지만, 그 순간 오롯이 안젤리카의 아픔과 슬픔에 몰입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했습니다. 성악적인 표현과 진심 어린 감정
이 가장 깊이 맞닿았던 배역입니다.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있다면요.

저의 뮤즈는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와 마리아 유잉(Maria
Ewing)입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모든 소프라노에게 우상이자 하나
의 거대한 교과서 같은 존재이고, 마리아 유잉은 제가 무대에서 추구
하는 음악적·연기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15년여 전 마리아
유잉이 연기한 오페라 <살로메>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강렬함과
전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좋은 기량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
시나요.

성악은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악기를 울려 소리를 내는 예술이므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날의 상태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곡이든 오라토리오든 오페라든
불러야 하는 가사에 집중하고,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외부의 어떤 요
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연주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함



〈마티니스〉©성남문화재단, 최재와

“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깊은 동경의 마음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속에 품은 모든 열망과 꿈을 현실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더 깊이 갈망하고,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

니다. 쉽지는 않지만 흔들린 마음을 다잡고 평정심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성악가로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몸의 중심을 익히고 속근육을 단련하면서 호흡을 받쳐주는 힘이 좋아졌고, 무대에서의 자세와 체력을 관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투란도트>에서 타이틀롤을 맡으셨습니다. 투란도트라는 인물을 표현하고 연기하면서 특히 집중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동안 류 역을 맡아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투란도트 역을 맡았습니다. 이전에는 관객의 관점에서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온종일 소리만 지를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그런데 캐릭터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 그렇게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내면의 거대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투란도트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성숙하게 설명할 여유조차 없는, 말 그대로 날것의 상처를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강하게 경계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캐릭터를 이해하고 나니 현실에서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더 다정하고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기적인 성장을 넘어 인간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운 배역입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투란도트가 사랑을 받아들이며 변화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페라는 정해진 러닝타임 안에 전체 서사를 마무리해야 하다 보니 인물의 심리적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투란도트>는 류의 죽음 이후 장면을 푸치니가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란도트의 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굳게

지녀온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때로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견고했던 편견이 무너지거나 오해가 풀리는 것도 결국 찰나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바라보면 투란도트의 변화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칼라프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러 교향곡 1번>에서 선보일 ‘베젠동크 가곡’은 오페라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두고 표현하고자 하나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곡 역시 풍성한 음량과 에너지를 요구하므로 발성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크게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음악적·연기적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곡은 오페라 아리아보다 저음의 비중이 높고 섬세하고 시적인 언어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페라의 대사와 달리 많은 의미가 응축된 ‘시’를 바탕으로 하므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무대에서도 오페라보다 조금 더 정제되고 절제된 방식으로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베젠동크 가곡’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서는 무엇인가요.

바그너와 마틸데 베젠동크의 사랑은 당시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아름다운 시와 음악으로 승화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음악가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4곡 ‘고통’의 마지막 구절에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오, 자연이여,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의미의 가사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마



〈나부코〉, ©서울시오페라단

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역설적인 정서가 깊은 인상을 줍니다. 무대 위에서 제가 이 구절을 표현할 때 관객분들께서도 그 안에 담긴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에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악가로서 바라본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성악가가 주로 접하는 가곡이나 오라토리오, 오페라에는 언제나 가사라는 명확한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반면 교향곡은 ‘텍스트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작곡가는 수많은 악기의 색채와 결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펼쳐내고, 듣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3악장이 인상 깊습니다. 장례 행진 속에서 죽음과 삶, 비극과 희극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무겁고 엄숙해야 할 장례라는 상황에 아이러니와 블랙 유머가 담겨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역설이 이후 말러 음악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만나며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요.

부임한 첫해, 학생들이 올린 오페라 무대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생동감 넘치게 자신을 표현하

는 뛰어난 재능의 학생들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큰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작품을 선택한 배경이나 자신만의 캐릭터 해석을 이야기할 때면 저 역시 같은 작품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전달되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내가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요.

학생 시절부터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역할이 <투란도트>의 투란도트와 <살로메>의 살로메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7월 <투란도트>로 한 가지 꿈을 이루었으니, 이제 저에게는 <살로메>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을 들으며 관객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었던 이루지 못한 꿈이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아련한 사랑을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이 음악에 포개어 들어주신다면, 이번 공연이 더욱 깊고 진한 울림으로 마음에 남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문화의 파이프라인

퐁피두 센터가 보여주는 공간 ESG

파리 조르주 퐁피두 광장에 서면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는 지금도 건물이라기보다 거대한 기계처럼 보인다. 파랑·빨강·노랑·초록의 관, 외벽으로 드러난 철골, 공중을 가로지르는 투명한 에스컬레이터. 전통적 박물관이라면 숨겼을 배관과 구조를 밖으로 꺼낸 이 건물은 1977년 개관 당시 적지 않은 논쟁을 불렀다. 정유공장 같다는 조롱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퐁피두 센터는 20세기 후반 건축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글. 노승림(문화정책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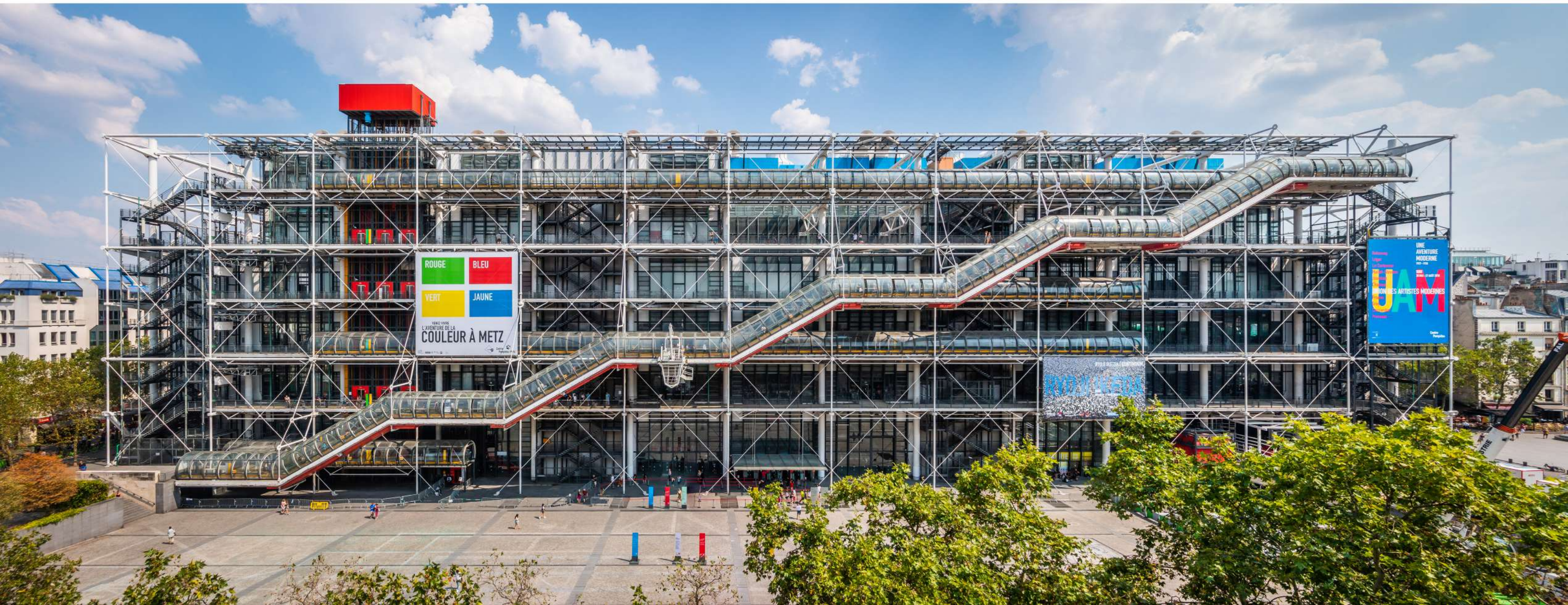
문화의 흐름을 바꾼 건축

이 건물은 조르주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의 구상에서 출발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들에게 대형 문화 건축은 한 시대의 문화적 비전을 도시의 풍경 속에 남기는 '그랑 프로젝트'의 전통이었다. 퐁피두가 보부르 문화센터를 구상했고, 프랑수아 미테랑은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 오페라 바스티유, 라 데팡스 대아치, 아랍세계연구소, 새로운 국립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1995년 문을 연 국립도서관 신관은 현재 그의 이름을 따 BnF 프랑수아 미테랑관으로 불린다.

퐁피두의 핵심은 미술관 하나를 새로 짓는 데 있지 않았다. 미술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음악연구소, 교육 프로그램을 한 장소에 모아 예술을 엘리트의 전유물에서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국제 공모를 통해 렌초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 등의 설계안이 선택되었고, 이 건축은 곧 문화정책의 선언문이 되었다.

내부의 각 층에는 기둥과 고정 벽을 거의 없앤 넓은 가변형 대공간, 이른바 '플라토'가 들어섰다. 이 공간은 전시와 공연, 토론과 휴식, 학습과 우연한 만남을 필요에 따라 담아낼 수 있었다. 건축가들은 배관·환기·전기 설비와 승강 장치를 외벽으로 밀어냈다. 그래서 내부에는 넓고 비어 있는 공간이 남았고, 시민은 그 공간에서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고, 토론과 학습에 참여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머물 수도 있다. 퐁피두의 색색의 관은 장식이 아니라, 건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설비의 지도였다.



공간에서 읽는 ESG

이런 점에서 풍피두 센터를 설명하는 핵심 은유는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은 물과 공기, 전기와 정보를 흐르게 하는 통로다. 풍피두는 문화 역시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며, 도시의 표면을 따라 시민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말한 셈이다. 외부 에스컬레이터는 미술관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도 파리의 풍경을 감상하고 예술기관의 존재를 가까이 느끼게 했고, 건물 앞 광장은 입장권 없이도 머물고 만나고 쉬는 공공의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 이 건물은 ESG라는 언어로 새롭게 읽힌다. 문화공간에서 환경(E)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만 있지 않다. 무엇을 새로 짓고 무엇을 오래 쓰며, 자재와 폐기물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S)는 어린이·장애인·고령자·비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거버넌스(G)는 설계와 운영에 이용자, 지역사회, 노동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얼마나 투명하게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풍피두 센터는 2025년 가을 파리 본관을 휴관하고 2030년 재개관을 목표로 대대적 리노베이션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석면 제거, 부식 처리, 화재 안전성 강화, 배관·전기·환기 설비 교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개선,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기존 건축의 정체성과 구조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은 새것을 더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더 오래·더 안전하게·더 적은 에너지로 쓰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서울로 옮겨온 풍피두의 실험

파리 본관이 문을 닫은 시기에 풍피두의 파이프라인은 서울까지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 자리한 ‘센터 풍피두 한화 서울’은 풍피두 센터의 국제 협력 거점이다. 이는 프랑스 미술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본관 휴관기에도 소장품과 프로그램이 세계 여러 도시를 순환하도록 하는 풍피두의 국제 전략, 다시 말해 문화 접근권을 한 도시의 본관에만 묶어 두지 않으려는 실험의 일부다. 풍피두는 서울을 말라가, 상하이, 브뤼셀 등과 함께 국제 파트너십의 거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 본관의 출발에서도 ESG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한화문화재단과 풍피두 센터의 협력은 기존 63스퀘어 내부를 리모델링해 전시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도시의 기존 랜드마크를 철거하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쓰는 것은 건물의 구조적 자원과 입지를 살리고,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는 접근이다. ESG의 환경성은 태양광 패널이나 친환경 인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어떻게 오래 쓰고 다른 공공적 가치로 전환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의 조건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린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 경험 제공, 신진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해외 레지던시 지원, 국내 예술 생태계에 기여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화는 풍피두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어린이 미술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시 관람객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청년·예비 창작자에게 문화예술의 진입 경로를 넓히려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서울 본관의 ESG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제 전시는 항온·항습, 조명, 작품 운송, 설치와 철거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쓴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 전시 자재 재사용률, 친환경 전시 제작 기준, 지역 예술가와 교육자의 참여, 관람료와 교육 접근성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전시 벽체와 집기를 반복 사용하고, 지역 제작소·사회적기업과 자재 회수 체계를 만들며, 기후와 순환, 접근성을 예술교육의 주제로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풍피두의 유산은 색색의 파이프가 상징하는 문화적 실험에 있다. 핵심은 문화의 배관을 밖으로 드러내고, 누구나 그 흐름에 접속하게 하려는 발상에 있다. 2030년의 풍피두는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자재를 재사용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열리는 공간을 지향한다. 여의도의 서울 본관도 해외 명작을 전시하는 쇼윈도를 넘어, 재사용과 접근성, 시민 참여와 지역 협력을 실천한다면 이 파이프라인의 다음 구간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이란 친환경 건물 하나를 짓는 데 머무는 개념이 아니다. 오래 쓰는 건물과 다시 쓰는 재료, 쉽게 닿는 동선과 끊이지 않는 교육, 도시 곳곳으로 흘러가는 예술의 통로를 함께 만드는 일이다.▶▶

고요하고, 강렬하게 공명하는 곳으로

다른 것들이 만드는 문화예술 여행지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지만, 무언가와 함께할 때 더 깊어지기도 한다.

오래된 소리와 오늘의 시간, 푸르른 산수와 예술, 과거의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순간처럼 말이다.

서로 다른 존재가 어우러져 예상치 못한 공명을 일으키는 곳으로 떠나본다.

글. 마이삭(디자인신화)

소리와 시간의 공존 오디움

제2전시실에는 독일 '클랑필름'의 대표적 오디오 시스템인 '유로단' 스피커의 각종 모델이 자리한다.



2만 개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뒤덮인 건물이 영롱하게 빛난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입구를 지나면 어두운 전시실 속 스피커가 모습을 드러낸다. 2024년 서울에 문을 연 '오디움'은 빈티지 오디오의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오디오 전문 박물관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설계한 곳으로, 소리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세워졌다.

상설전시 <정음(正音): 소리의 여정>에서는 '좋은 소리'란 무엇인지 탐구한다. 축음기, 뮤직박스, 빈티지 오디오와 같은 시대별 음향기기를 따라 '하이파이(Hi-Fi)', 즉 원음에 충실한 소리를 경험한다. 그중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웨스턴 일렉트릭 혼 스피커 12A와 13A'다. 4m가 넘는 혼을 이용해 선명한 소리를 넓은 범위에 전달하던 1920년대 극장용 음향 시스템이다. 1927년 영화 <재즈 싱어>에 사용됐으며,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던 영화사의 변천을 함께했다. 이 외에도 소형 극장용으로 개발된 후 가정용 오디오 기술의 발판이 된 1937년 '랜싱 아이코닉', 원목 캐비닛과 곡면 반사판을 지녀 가구 같은 스피커라 불린 1957년 'JBL 파라곤' 등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음향기기가 전시돼 있다.

라운지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20세기 초 무도회장에서 연주되던 벨기에 '모르티에 댄스 오르간'과 10만 장의 LP가 공간을 뺄곡히 채운다. 한 세기 전의 장비가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오늘날에 도달하며 아련한 여운을 남긴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8길 6
☎ 02-574-5175
🌐 audeum.org
🕒 목~토 10:00~17:30 *사전예약제



자연과 예술의 조화

뮤지엄산

건축계의 거장 안도 다다오는 원주의 산 정상의 부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산상(山上) 지형에 순응하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미술관을 떠올렸다. 그렇게 약 8년의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13년 'Space(공간)', 'Art(예술)', 'Nature(자연)'가 합쳐진 '뮤지엄산(Museum SAN)'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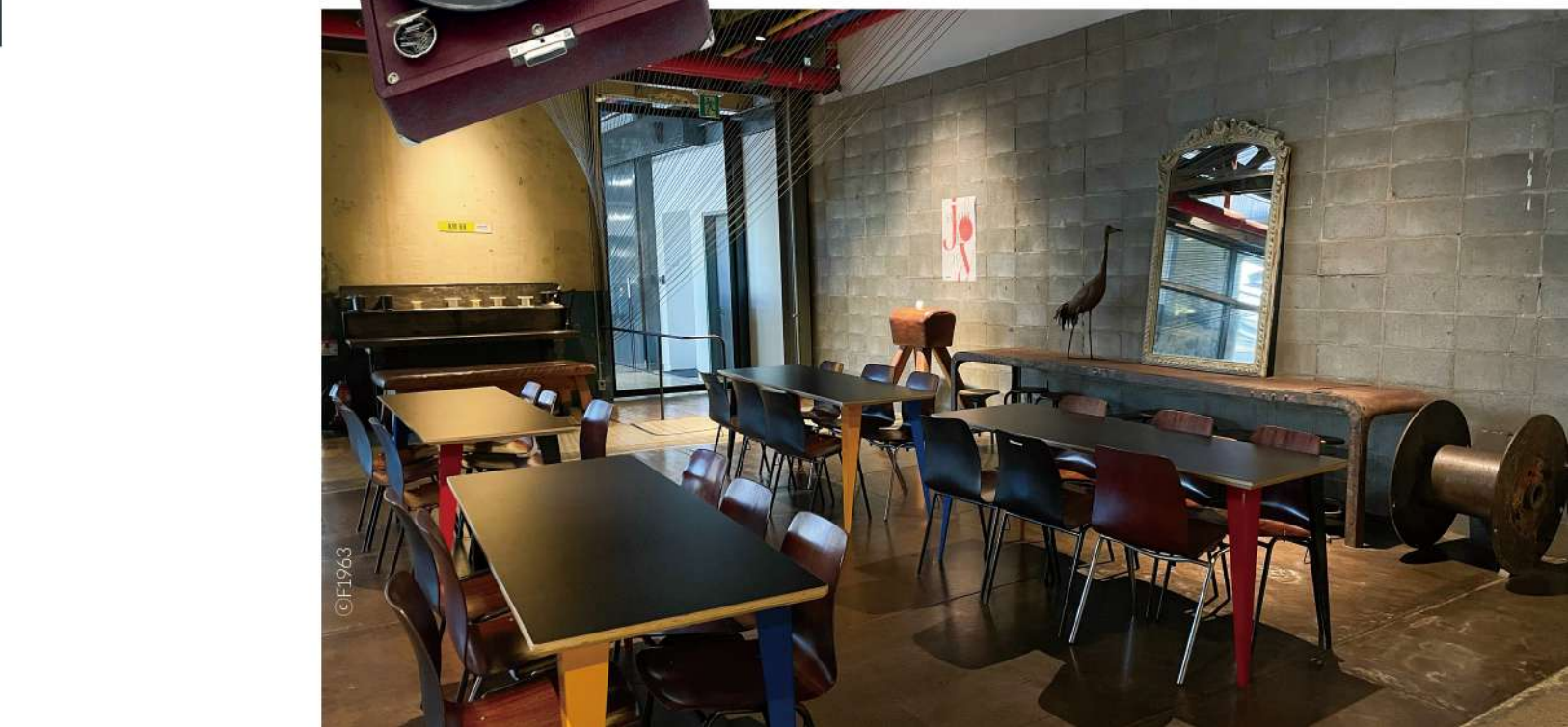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는 2025년 개관한 'GROUND 안토니 곰리관'을 꼽을 수 있다. '대지'라는 이름처럼 땅과 교감하는 안식처로 지어졌으며, 지름 25m의 지하 동굴 형태를 띤다. 동쪽으로 난 거대한 입구는 원주의 산맥을 향해 열려 나뭇잎과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 그 방향을 따라 안토니 곰리의 조각상 <Blockworks> 시리즈 7점이 들성듬성 놓여있다.

'제임스 터렐관'에서는 빛과 하늘이 작품의 주재료가 된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연상시키는 <스카이스페이스>는 열린 원형 천장을 통해 햇빛을 받아들이고, <호라이즌룸>은 빛의 제단을 형상화한 계단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한다. 돌로 쌓아올린 돔 모양의 '명상관'에서는 상잉볼 소리와 아로마 향이 퍼지는 가운데 여유 명상, 음악 테라피 명상, 심명상이 이루어진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좁다란 창 사이로 한줄기 빛이 스며들며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을 완성한다. 미술관 곳곳에서 자연이 예술 안으로 들어오고, 예술은 다시 자연 안으로 들어가며 끊임없이 아름다운 만남을 반복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 033-730-9000
🏠 museumsan.org
🕒 ☐ 화~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명상관에서는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명상 도구 '상잉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한다.



산업과 문화의 변주

F1963

멈춰버린 공장 한가운데서 전시가 열리고, 기계가 오가던 통로에는 음악이 흐른다. 'F1963'은 오래된 산업시설을 허물어 새로 짓는 대신 그 기억을 품은 채 문화예술의 무대로 변신했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를 생산하던 고려제강의 공장이었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Factory의 'F'와 공장이 세워진 해 '1963'을 이름에 남겼다. 그렇게 생산 설비가 있던 곳은 로컬, 서브컬처, 청년 공연이 열리는 석천홀로 바뀌었고, 대형 크레인이 매달렸던 자리에는 동서양 고전을 쌓아 올린 북타워가 세워졌다. 더불어 예술 전문 도서관과 중고서점, 실험적 디자인 전시홀과 카페까지 두루 생겨나며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 집결지로서 모습을 갖췄다.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산업유산의 흔적만은 지우지 않았다. 공장 바닥에서 뜯어낸 콘크리트는 대나무 산책길의 디딤돌이 되었고, 철판과 드럼통은 카페 '테라로사'의 커피 바와 테이블로 되살아났다. 와이어를 감던 보빈과 발전기도 여전히 카페 한편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 산업과 문화예술,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한 공간에서 서로를 더욱 특별하게 빛내주고 있다.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 051-756-1963
🏠 f1963.org
🕒 ☐ 화~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F1963

취향의 픽셀 모으기

픽셀라이프

평일에는 퇴근 후 요가를 하고, 주말에는 기타를 연주한다.
집에서는 유튜브로 야구 영상을 틀어놓고, 뜨개질을 한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분야의 취미를 즐기며
일상을 촘촘히 채운다. 우리는 이미 픽셀처럼 잘게
쪼개진 '픽셀라이프'를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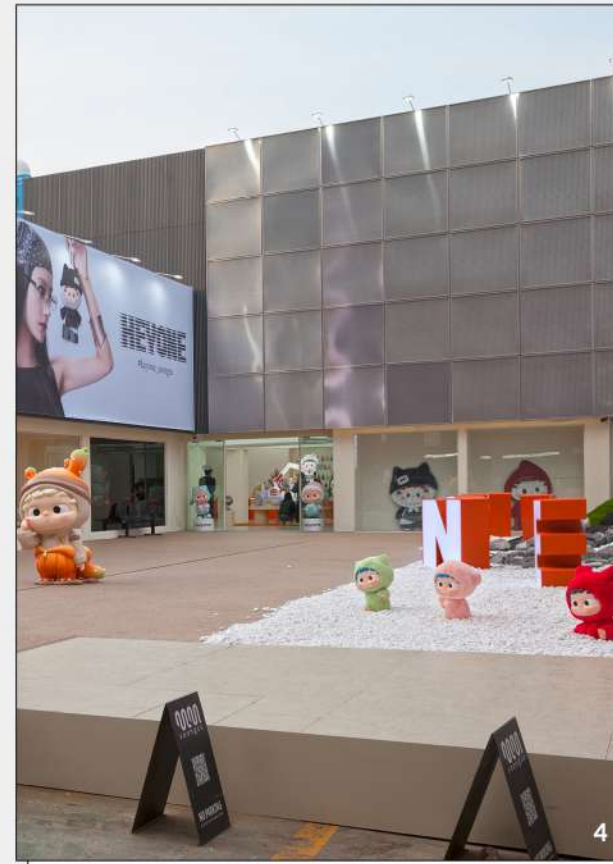
글. 박혜리(디자인신화)



더 작게, 더 많이, 더 빠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화면을 확대해 보면, 가장 작은 점인 픽셀이 눈에 띈다. 픽셀은 아주 작고, 많으며, 짧은 순간 생겼다가 사라진다. 픽셀의 이러한 특징을 우리 삶에 빗댄 개념이 '픽셀라이프(Pixelated Life)'다. 마치 디지털 화면이 수많은 픽셀로 구성되듯 삶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 즐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더 작게', '더 많이', '더 빠르게'라는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사람들은 대용량보다 최소 단위 상품을 소비한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0.5인분 배달로 맛보거나, 궁금했던 화장품을 대용량 본품 대신 미니사이즈 5개입 세트로 구입한다. 다양한 경험을 폭넓게 시도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평일 퇴근 후에는 수영

을 하고, 주말에는 록 페스티벌에 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취미를 즐긴다. 또 시즌 한정 팝업스토어에 가거나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처럼 '지금 아니면 사라지는' 찰나의 경험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러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다음 트렌드로 빠르게 갈아탄다. 이제 사람들은 작고 많고 빠른 경험을 다층적으로 소비하고 경험하며 쌓아 나간다.



취미 생활도 짝어 먹기

취미 생활도 다양한 분야를 ' 짝먹(짝어 먹기)' 하는 형태로 변했다. 기존에는 등산이나 베이킹 등 하나의 취미에 깊게 몰두하며 수개월씩 장기 수강권을 결제했다면, 이제는 여러 분야의 취미를 도장 깨기 하듯 체험한다. 2시간 예약제 서점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다가, 동묘시장으로 말랑이를 사라 간다. 게다가 장기적인 동호회 활동 대신 특정 목적을 위해 번개 형태로 짧게 만나고 미련 없이 헤어지는 소모임 문화도 늘고 있다. 올해 초 유행한 감자튀김만 먹고 헤어지는 감튀 모임이나 앱으로 모여 딱 한 바퀴 뛰고 해산하는 1시간 러닝 크루가 그 예다.

이러한 변화에는 짧은 주기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이크로 트렌드'가 한몫을 했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에 머무르는 대신 그때그때 관심 가는 경험을 가볍게 즐기고 빠르게 다음 관심사로 이동하는 것이다. 결국 픽셀라이프는 현대인들이 한정된 시간과 비용 안에서 짧고 확실한 만족을 누리려는 전략인 셈이다.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법

짧게 즐기고 금방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모습은 간혹 지속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전에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려면 장비를 사고, 학원을 등록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픽셀라이프로 즐기는 취미는 '일단 한 번 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실패할까 망설이기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삶의 '정답 루트'가 사라진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픽셀 하나하나가 모여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되듯, 우리도 작은 경험의 픽셀을 쌓으며 삶의 해상도를 높여보자. ▶▶

추천 플레이스

컬처 라운지 경기, 장(場)

여행, 예술, 공연, 로컬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합문화공간이다.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로컬레이터', 도자 공예와 차 시음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자상점', 컬러링과 미술 전시를 만나는 '아트앤굿즈', 라이브 공연과 AI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플레이:경기'까지 취향에 따라 여러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지하 36 (경기도서관 옆)



- 1 요일별로 다른 취미를 즐기며 일상을 채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2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가볍게 감자튀김만 먹고 해산하는 '감튀모임'이 생겨났다.
- 3 요즘은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되는 책방도 있어 정해진 시간만큼 책에 집중할 수 있다.
- 4 짧게 즐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즌 한정 팝업스토어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으로 듣는 두 시대의 음악

라울 뒤편과 조선의 악기 풍경

그림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그림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현악기의 빠른 선율이 귀를 스치고, 북소리가 울리며, 사람들이 흥에 겨워 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까. 더구나 사실에 근거하거나 기록이 뒷받침된 그림이라면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진다. 라울 뒤편의 <오케스트라>와 중종조 사연(賜宴)을 그린 <중묘조서연관사연도>가 그렇다. 두 그림은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악기가 있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음악을 즐기는 한 시대의 풍경이 담겨 있다.

글. 변종필(미술평론가)

색과 선이 만드는 리듬

라울 뒤편(1877~1953)는 삶의 즐거움을 색채로 표현한 프랑스 화가다. 그는 바다와 요트, 경마장, 축제와 음악회 등 삶의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자주 그렸다. “나의 눈은 추한 것을 지우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던 그의 작품은 실제로 삶의 무거움이나 고통보다는 밝고 흥겨운 음악과 즐거운 축제의 감동이 넘쳐난다. 특히 음악은 뒤편에게 특별했다.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가 평생 즐겨 그린 소재 중 하나가 오케스트라였다. 뒤편은 음악을 단순히 관찰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1942년 작 <오케스트라> 그림 앞에서면, 악기의 형태보다 먼저 리듬이 느껴진다. 특유의 경쾌한 필선과 황금빛 색채가 어우러져 있다. 그의 독특한 기법 때문이다. 보통 화가들은 형태를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색으로 채운다. 뒤편은 거꾸로 했다. 넓은 색면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자유로운 선을 엮었다. 선은 색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제멋대로 흐른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윤곽이 옆 악기의 색 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연주자의 팔이 보면대의 색과 뒤섞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어긋남’이 오히려 음악성을 배가시킨다. 합주

에서 각 악기의 소리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하모니를 만들듯 뒤편의 선과 색은 서로 스며들면서 화면 전체를 하나의 화음처럼 울리게 한다. 인물 하나하나를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지만, 지휘자와 연주자, 악기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화면 곳곳에서 선율이 흐르는 듯하다. 이러한 화면은 뒤편이 캔버스 위에 옮겨놓은 ‘눈에 보이는 음악’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뒤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붙이고 싶어진다. ‘음악에 취한 그림’. 뒤편의 오케스트라를 이보다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듯하다.



풍악과 술이 흐르던 궁중의 한때

400년 이상 앞선 조선에도 음악에 ‘취한’ 그림이 있었다. 다만 이쪽은 진짜로 취했다. 1535년(중종 30년)에 그려진 <중묘조서연관사연도>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부감법으로 그려진 그림의 무대는 경복궁 근정전 앞뜰. 화면 뒤편으로는 경복궁 북쪽을 감싸는 백악산(지금의 북악산)이 보인다. 연회의 참석자는 당시 왕세자(훗날의 인종)를 가르치던 서연관(書筵官)들이다. 의관을 정제하고 앉은 서연관들을 위해 악공들이 곡을 연주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무희들은 춤을 추고 있다. 대규모 궁중 행사에 비하면 인물과 악대의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이들에게 임금이 베푸는 연회인 만큼 격을 갖춘 자리다. 이 그림에서 악기는 뒤편처럼 ‘조형적 리듬’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속 악기의 종류를 맨눈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공의 위치와 악기의 종류, 무희의 배열 등에서 궁중 곡연(曲宴)의 일정한 의례적 질서를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중묘조서연관사연도>를 찬찬히 살피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풍악과 술이 오가는 연회의 한편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참석자를 시종이 부축해 밖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엄숙한 궁중 행사의 기록 속에 인간적인 장면이 끼어

있다. 연회의 특성상 실제 상황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변 인물 몇몇은 힐끗 쳐다보는 듯하지만, 연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된다. 21세기 회식 풍경과 다를 것이 없다. 연회의 끝은 동서고금 어디 서나 비슷했던 모양이다.

두 그림을 다시 번갈아 가며 보자. 근대 유럽의 콘서트홀과 16세기 조선의 궁중 연회는 전혀 다른 음악의 공간이다. 뒤편의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지는 리듬과 움직임을 색과 선으로 표현했다면, <중묘조서연관사연도>는 음악이 당시 사람들의 삶과 행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음악의 ‘느낌’을 그렸고, 다른 하나는 음악이 존재했던 ‘자리’를 그렸다. 두 그림에는 실제 소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두 그림을 통해 악기가 연주되고, 풍악이 울리는 소리를 들은 듯하다. 뒤편의 화면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조선의 연회도에서는 악공의 풍악과 술자리의 웅성거림을. 그렇게 그림 속 악기는 시대를 들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듣는다.▶▶



1 라울 뒤편 <오케스트라>, 1942, 캔버스에 유채 및 gouache
2 <중묘조서연관사연도>, 1535, 종이에 엮은 채색

유럽극장협회가 진행하는 STAGES 프로젝트 포럼의 한 장면.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과 폐기물로 만든 업사이클링 발연대를
활용해 자원 순환의 의미를 전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농지에서 열리는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자연 속 야영과 정기적인 휴지기로 환경을 고려한다.

‘에코퍼포먼스’는 자연을 공연의 배경이나 소재로 바라보며 창작 과정
과 공간을 생태적 관점에서 설계하는 접근이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
에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과 관객의 관계
도 살핀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공연에서 환경과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공연예술은 세트와 조명, 의상 제작, 공연장 운영, 이동과 투어에 상
당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공연계
에서도 제작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트를 재사용
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며, 이동 과정에서 발
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변화가 바로 그 예다. 1970년 첫발을 댄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대규모 야외 축제를 운영하며 환경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온 사례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을 독려
하는 등 축제 운영에 친환경 방식을 적용해 왔다. 특히 농장과 자연을
보호하고자 약 5년에 한 번 휴지기를 갖는다. 2026년에는 대지와 토
양의 회복을 위해 축제를 쉬고, 2027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공연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다. 유럽극
장협회가 추진하는 ‘STAGES’ 프로젝트는 세트 재사용, 친환경 소재
도입, 배우와 물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순회공연 적용, 극장 운영 개
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여러 극장과 단체가 현장에서 실천한 방
법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제작 기준을 세워가고 있다. 에코퍼포먼
스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와 더불어, 어떻게 공연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자연과 자원을 고려한 선택이 창작의 전 과
정에 반영되면서 공연예술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자연을 생각하는 공연예술

기후위기는 이제 공연예술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연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공연을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에코퍼포먼스(Ecopformance)’다.

ZOO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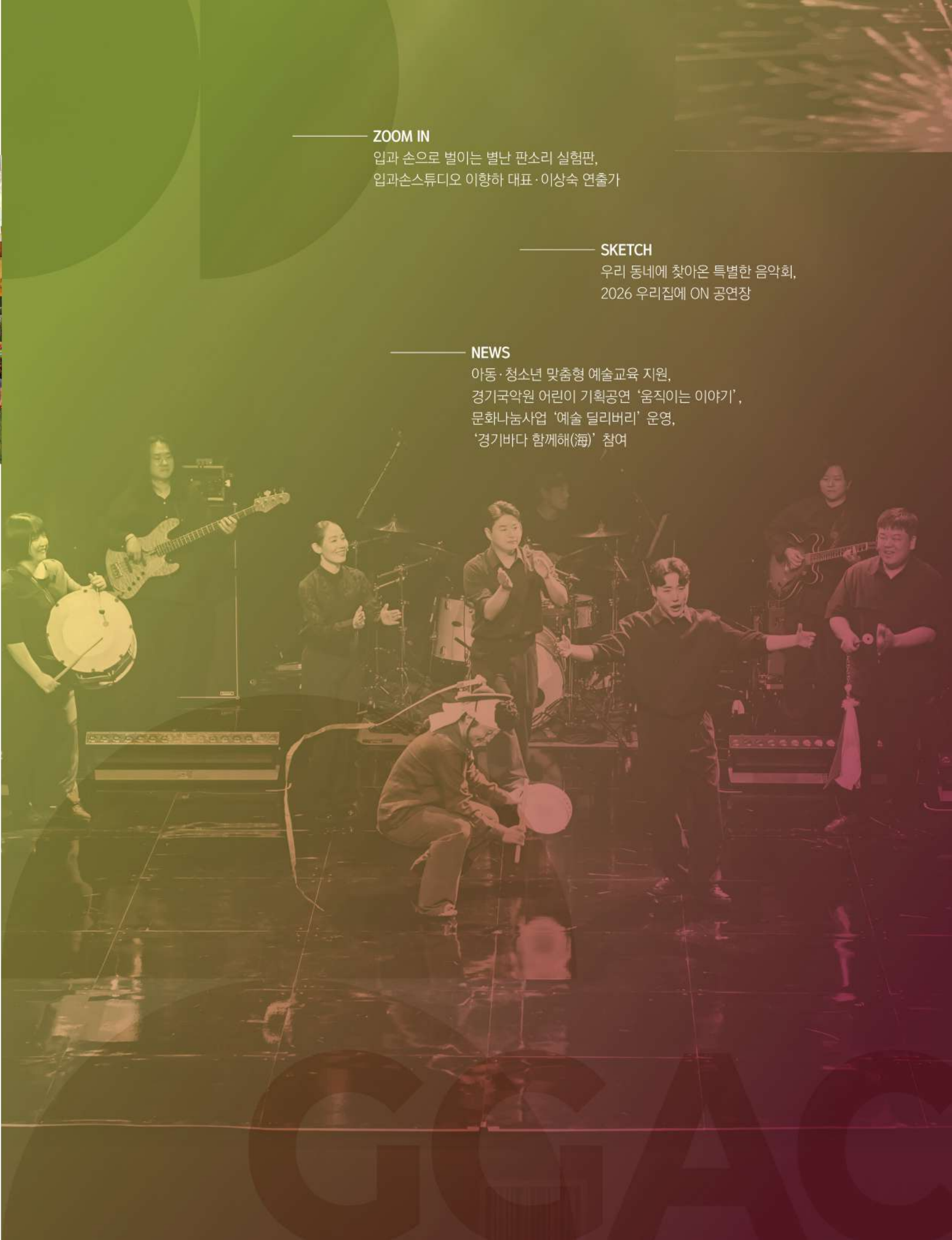
입과 손으로 별이는 별난 판소리 실험판,
입과손스튜디오 이향하 대표·이상숙 연출가

SKETCH

우리 동네에 찾아온 특별한 음악회,
2026 우리집에 ON 공연장

NEWS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
경기국악원 어린이 기획공연 ‘움직이는 이야기’,
문화나눔사업 ‘예술 딜리버리’ 운영,
‘경기바다 함께해(海)’ 참여



입과 손으로 벌이는 별난 판소리 실험판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입과손스튜디오 이향하 대표·이상숙 연출가

어떤 것이든 장단이 될 수 있다는 듯, 장르도
시대도 가리지 않는다. <레 미제라블>도 꺼내오고
그림책도 펼쳐와서 흥겨운 판소리로 바꾸어버리니,
듣다 보면 어깨가 들썩이고 절로 신명이 난다.
남양주문화재단과 함께 유쾌한 판을 이어가고
있는 입과손스튜디오 이향하 대표,
이상숙 연출가를 만났다.

글. 마이삭(디자인신화) | 진행. 김규량(경기아트센터) | 사진. 임동욱

‘입과손스튜디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입과손스튜디오는 2017년에 창단한 판소리 창작공동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판소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리꾼과 고수, 연출자 및 프로듀서가 모여 판소리가 가진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다양하게 재해석해오면서 느낀 ‘동시대의 판소리’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판소리라는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판소리의 형식을 하나로 정해 두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작업할 때 ‘이렇게 해도 판소리가 될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룰 수 있는 이야기와 무대 표현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고요.

대표님은 판소리에서 고수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고수는 소리꾼과 관객 사이에 있는 중간자예요. 소리꾼의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받쳐주는 동시에 관객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길을 안내하기도 하죠. 그래서 판소리를 만들 때도 이런 다층적인 역할을 작품 안에 적극적으로 녹이려고 합니다.



연출가로서 연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또 왜 판소리여야 하는지예요. 판소리로 표현했을 때 인물의 감정이나 관계가 훨씬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구체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고르는 기준과 실제 작품으로 옮기는 과정은 어떤가요.

초기에는 이야기보다 실험을 먼저 정했어요. 판소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고, 그 실험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찾았죠. 지금은 이야기와 판소리가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작품화 과정도 달라요. 프랑스 고전 소설 <레 미제라블>은 방대한 서사를 한정된 공연에 담느라 수정을 많이 거쳤고, 한국 그림책 <긴긴밤>은 처음부터 판소리로 표현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라 비교적 수월하게 완성됐죠.

경기아트센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여러 차례 협업을 해오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협업 능력이 한층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날 땐 어느 한쪽이 흡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차이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우게 됐죠. 특히 <사계의 노래>는 단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살려 하나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때 얻은 배움이 이후 다른 장르와 협업할 때 중요한 기틀이 됐습니다.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남양주문화재단과 인연을 맺으면서 팀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우선 남양주를 기반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 관객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만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개발하게 됐죠. 그렇게 지역 관객과 레퍼토리를 함께 쌓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결실이에요. 또 1년

단위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어 팀 운영에도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요. 올해 처음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도 공연과 연계한 리워드도 제작해 봤어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앞으로 활용 방식이 넓어진다면 공연단체의 활동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일 중에 특히 마음에 남은 기억이 있다면요.

감사한 추억이 참 많은데요. 다산아트홀에서 선보인 <오류의 방>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의 테레사 포모도로 국제연극상 무대까지 올랐고요. 타 지역으로 공연을 갈 때 남양주 관객분들이 찾아오셔서 인사를 건네고 응원해 주시기도 하세요. 특히 <두 제비 이야기>에서는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해맑게 비행기를 날리며 공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 순간마다 남양주에서 함께해 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합니다.

올 하반기에 준비 중인 공연과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다산아트홀에서 11월 즈음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귀명창 프로젝트 <홍보가로 놀아보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장단과 소리, 아니리 등 판소리의 여러 요소를 몸소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지난 1년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공동 창작·제작해 <긴긴밤>을 한·영 이중언어 버전으로 개발했어요. 9월 말 호주에서 처음 선보였고, 내년에 한국과 경기도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과손스튜디오는 관객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계속해서 판소리를 만드는 단체로 남고 싶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판소리를 사랑하고, 또 판소리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라는 확신도 있거든요. 100년, 200년 뒤에도 생생한 판소리가 울려 퍼지는 데 저희가 힘을 보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저희 역시 오래, 또 재미있게 판소리를 만들어가야겠죠. ▶▶

우리 동네에 찾아온 특별한 음악회

2026 우리집에 ON 공연장



집을 나서 몇 걸음 걷다 보면 늘 지나던 길에서 음악이 들리고, 사람들이 오가던 거리에 어느새 무대가 들어선다.
평범했던 일요일 오후, 일상의 풍경에 공연을 기다리는 설렘이 더해진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문화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
‘2026 우리집에 ON 공연장’이 우리 동네에 찾아왔다.

글. 양효선(디자인신화) | 사진. 김정호

여기가 바로,
우리집에
ON 공연장!

리허설부터 흥 ON!
공연 전부터
신나게, 즐겁게~



집 앞에서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다니!



집 앞을 나섰을 뿐인데
음악이 들려온다.
평소 지나던 아파트 앞마당이
어느새 공연장이 되고,
이웃과 함께 노래를 듣고
박수를 보낸다.

일상에 켜진 문화의 불빛

9월 초, 용인의 한 아파트가 평소와는 사뭇 다른 특별한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리허설 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옮겼다. 가족과 함께 나온 아이부터 이웃과 담소를 나누던 어르신까지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공연이 다가올수록 객석도 빠르게 채워졌다. 애초에 예상 관객보다 많은 사람이 공연을 만끽했다. 늘 오가던 곳이 이날만큼은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로 가득했다.

‘2026 우리집에 ON 공연장’은 경기아트센터가 공동주택 등 도민의 생활 가까이 찾아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공연장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도 집 근처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더 편하게 즐길 기회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집에 ON’은 영어 ‘ON’과 우리말 ‘온다’의 발음을 활용한 이름이다. 경기아트센터가 공연장을 벗어나 도민의 생활 가까이 직접 찾간다는 의미와, 일상의 공간에 문화예술을 켜다(ON)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단지 내 자율방범대 등 주민 봉사 조직도 참여해 전과 음료를 무료로 나누며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을 맞았다.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과 공연을 즐기는 사람이 따로 나뉘지 않고, 이웃들이 다 같이 행사를 준비하며 동네의 하루를 만들어갔다.

노래로 하나 된 아파트 앞마당

이날의 분위기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달아올랐다.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서 악기 소리와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는 자리를 잡고 무대를 지켜봤고, 누군가는 가족과 이웃을 불러 공연을 기다렸다. 그렇게 관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아파트 앞마당은 제법 활기찬 야외 공연장의 모습을 갖췄다.

첫 무대는 성악 앙상블 ‘라클라쎄’가 열었다. ‘오 솔레 미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나의 살던 고향은’ 등 오페라와 대중음악, 동요를 넘나드는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그룹사운드 ‘딕헤밀리’가 무대에 올라 ‘나는 못난이’, ‘작별’, ‘또 만나요’와 같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를 들려줬다. 친숙한 멜로디가 시작될 때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손뼉을 치며 무대에 몰입했다.

세대도, 생활 방식도 달랐지만 이날만큼은 같은 노래를 들으며 한 데 어울렸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객석에는 노래의 여운과 웃음이 한 동안 남았다. 매일 지나던 장소에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이자 익숙했던 일요일 오후도 빛났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주변에서 좋은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이날 ‘우리집에 ON 공연장’이 주민들에게 건넨 가장 가까운 문화의 풍경이었다.▶▶

경기아트센터 소식

잠재력 발견부터 성장의 기회까지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

경기아트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각자의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8일에는 '2026 경기예술성장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클래식과 국악 분야에서 선발된 유망주 24명의 전문교육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11월까지 전교별 1:1 레슨을 비롯해 음악 리터러시 수업, 합주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전문 예술인 멘토링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연주 역량과 무대 경험을 쌓는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예술교육도 이어간다. 5월에 시작한 '특, 예술'은 도내 약 45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기악과 성악, 연극 등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예술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보인 21명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심화 예술캠프 '프렐류드(Prelude): 꿈을 여는 첫 울림'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실기교육과 공연장 견학, 공연 관람, 심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 예술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앞으로 '프렐류드' 후속 멘토링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지속하고,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키워 나가는 기반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첫 국악이 시작되는 곳

경기국악원 어린이 기획공연 '움직이는 이야기'

경기국악원은 어린이들이 국악과 전통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획공연 브랜드 '움직이는 이야기'를 운영한다. 올해는 그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꼬마별이 만든 보물성>을 선보이고 있다. 국악과 그림자극을 결합해 전통문화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색다른 작품이다.

9월 8일에 열린 <꼬마별이 만든 보물성>에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통해 400여 명의 어린이가 관객으로 함께했다. 어린이들은 무대 위 이야기와 국악에 웃음과 박수로 호응하고, 스티커 활동과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공연을 다채롭게 즐겼다.

<꼬마별이 만든 보물성>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16회 운영되며, 11월 21일에는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특별공연이 이루어진다. 경기국악원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공연장에서 국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전통예술의 접점을 꾸준히 확대하고, 경기국악원을 어린이와 가족이 자연스럽게 찾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리 학교에 공연이 왔다

문화나눔사업 '예술 딜리버리' 운영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도민도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와 복지시설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예술 딜리버리'를 운영한다. 올해는 공모로 선정된 26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관객의 연령과 특성, 시설 환경에 맞는 공연을 도내 곳곳에 선보이고 있다.

9월 8일에는 의왕정음학교에서 국악 공연팀 '위아츠 플레이'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국악실내악에 드럼과 건반을 더한 음악부터 마술쇼, 버나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버나놀이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버나를 돌려보며 전통연희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 딜리버리'는 경기 북부와 남부 읍면지역을 비롯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간다. 하반기에는 고양 일산초등학교, 파주 한민고등학교 등 각지의 교육 현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스타그램 '경기아트딜리버리(@ggac_artdelivery)'를 운영해 공연 일정과 출연단체 정보, 현장 사진 및 영상 등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직접 찾아가는 공연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민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접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전망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작은 실천

'경기바다 함께해(海)' 참여

경기아트센터는 9월 14일 화성시 궁평술밭해수욕장 일원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으로, 경기아트센터도 분기별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날 경기아트센터 직원 및 단원 42명은 해수욕장과 인근 해안가를 걸으며 폐플라스틱과 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앞서 6월 여름철 관광객 증가를 앞두고 환경 정화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여름 성수기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아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힘을 보탰다.

경기아트센터는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으로 사회공헌의 영역을 넓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트센터 공연 일정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ctober *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매주 화~11월 2026 경기국악원 기획공연 - 움직이는 이야기 <꼬마별이 만든 보물섬> 11:00 경기국악원 국악당		1 음악과 인문학이 만나는 융복합 공연 <사색>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 동화발레 <춤추는 팬더>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 2026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I(제1~2·4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4 2026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I(제1~2·4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5 2026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의 숲 피아노 콘서트>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6 2026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실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8 2026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0 2026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II(제3·5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2 	13 	14 2026 경기청년예술가회 무대 <GGAC-CLASSIC> -서양음악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5 2026 경기청년예술가회 무대 <GGAC-CLASSIC> -서양음악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7 2026 윤종신 전국투어 콘서트 <가을 냄새>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5 2026 경기청년예술가회 무대 <GGAC-CLASSIC> -서양음악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7 2026 경기리베라오페스 트라 피날레콘서트 <OUR SYMPHONY: 우리의 교 향곡>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1 벨루스앙상을 제4회 경기연주회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2 	30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리 교향곡 1번>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4 2026 경기청년예술가회 무대 <GGAC-CLASSIC> -서양음악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31 경기필 마스터피스 시리즈 V <말리 교향곡 1번>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 	8 2026 이상섭 단독 콘서트 <Unknown>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0 	19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젊은명인: YOUNG VIRTUOSO> 19:30 경기국악원 국악당	6 루트비히 판 베토벤 컴플리트 피아노 트리오 III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7 2026 이상섭 단독 콘서트 <Unknown>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송승환의 가족뮤지컬 <더 스토리 오브 언더더씨>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5 송승환의 가족뮤지컬 <더 스토리 오브 언더더씨> 11:00,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2 최현우 <19+>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7 	20 2026 서가콘서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3 	21 최현우 <19+> 15:00,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8 2026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태평의춤>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9	30 		29 	20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2026.10.4.SUN
- 10.10.SAT
경기아트센터

2026 KOREA PIANO FESTIVAL

BEETHOVEN PREVIEW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티켓 홈페이지 확인 관람 7세 이상 관람가 예매 NOL 티켓(nol.interpark.com), 1544-2344
문의 031-230-3267 주최주관 경기아트센터





독자 이벤트

<예술과만남>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EVENT 1.

<예술과만남> 살펴보기

이번 호 <예술과만남>을 즐겁게 읽으셨나요?
지면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 퀴즈를 풀어보세요.

-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이 열린다. (6p)
- 10월 10일,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폐막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10p)
- '2026 경기청년 무대'는 한국음악, 서양음악 등 6개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예술인에게 창작과 발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4p)
- 10월 3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피스 시리즈 V 교향곡 1번이 열린다. (18p)
- 공동주택 등 도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2026 ON 공연장'이 9월 6일 용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됐다. (58p)



퀴즈 풀기



기간 2026년 11월 15일까지
발표 개별 연락
선물 카페 기프티콘 1만 원권(3명)

EVENT 2.

'예술과 만남' 기록하기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예술과 만나셨나요?
경기아트센터의 공간 방문, 혹은 공연 관람 등
예술과 만난 감상을 남겨보세요.

우수 감상문

7월 4일, 경기도무용단의 기획공연 <귀귀내력>을 관람했습니다. 한국무용인 줄 알았는데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결합한 감각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더군요. 감동적이고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박*란(8563)



감상남기기



기간 2026년 11월 15일까지
발표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연락
선물 카페 기프티콘 2만 원권(1명)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와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 QR코드

<예술과만남>을 읽으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예술과만남>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설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당첨자 발표 개별 연락
당첨자 선물 카페 기프티콘



음악과 공명

•

공명은 단지 물리적 파동이 겹쳐 소리가 커지는 현상이 아니다. 다른 궤적을 걷던 개인들이 하나의 소리를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다. 악기의 울림통이 공간을 채우고,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낯선 이들의 숨결과 조용하며 벽을 허문다. 저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대칭의 감정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그 찰나, 음악은 언어가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인간과 인간을 가장 투명하게 연결한다.